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80호 【루계 제24693호】 주체103(2014)년 10월 7일 (화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국가과학원에 높이 모시였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69돐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국가과학원에 높이 모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국가과학원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천세만세 높이 모셔갈 충정의 한마음안고 절세위인들의 동상을 모시는 사업에 뜨거운 지성을 바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은 과학자, 기술자들을 혁명의 영원한 동행자로 믿고 내세워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자애로운 태양의 모습을 형상하고있다.

뜻깊은 10월의 환희속에 국가과학원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게 된것은 당이 마련해준 과학기술룡마를 타고 첨단을 돌파하며 지식경제강국건설의 지름길을 열어나가는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한 우리 당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의 뚜렷한 표시이다.

국가과학원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제막식이 6일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제막식장은 주체적과학기술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를 과학기술성과의 알찬 열매로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불타는 열정으로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제막식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제막식장에 세워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과학기술중시사상을 틀어쥐고 강성국가를 건설하자!》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제막식장상공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들을 드리운 대형기구들이 떠있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량옆에는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으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다.

기발게양대들에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가 나붓기고있었다.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 현영철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최룡해동지, 박도춘동지, 김평해동지, 곽범기동지, 오수용동지, 로두철동지, 조연준동지와 김용진 내각부총리, 국가과학원 일군들과 과학자, 종업원들, 동상을 모시는 사업에 기여한 단위 일군들과 공로자들, 돌격대원들, 은정구역안의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이 제막식에 참가하였다.

제막식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제막을 당과 국가, 군대, 국가과학원의 책임일군들이 하였다.

제막포들이 벗겨지자 주체의 태양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이 찬연히 빛을 뿌리였다.

하늘땅을 진감하며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수많은 고무풍선들이 날아올라 뜻깊은 10월의 하늘가를 환희롭게 장식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에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와 전국의 과학자들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이어 국가과학원과 분원, 연구소들, 은정구역 정권기관, 근로단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 대학,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생할것이다》라는 글발들이 씌여져있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끝없는 경모심을 안고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가 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 천만군민이 당의 령도따라 선군조선의 대번영기를 펼쳐나가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국가과학원에 높이 모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국가과학원에 높이 모신것은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며 수령영생위업의 력사를 줄기차게 이어나가는데서 또 하나의 커다란 경사로 된다.

태양같이 환히 웃으시는 절세위인들의 동상을 크나큰 격정과 흠모의 정에 넘쳐 숭엄히 우러르는 우리모두는 조국의 부강번영과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업적을 경건한 마음으로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력사상 처음으로 주체사상을 구현한 인민대중중심의 주체적과학기술건설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고 일대 전성기를 펼쳐주신 주체적과학기술의 창시자, 건설자이시다.

일찌기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마크에 마치와 낫과 함께 붓을 새겨넣으시고 지식인들을 혁명의 주체의 구성부분으로, 기본동력으로 내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평생 과학자, 기술자들의 위대한 스승이 되시여 주체과학건설에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족의 생사존망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인 주체41(1952)년 12월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의 창립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것은 주체적과학발전사에 특기할 사변이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강령적가르치심들을 통하여 과학기술발전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으며 근 20차례나 국가과학원을 찾으시여 과학연구지도기관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은 짧은 력사적기간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와 전반적인 사회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며 비약의 한길로 줄달음쳐올수 있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주체적과학건설사상과 위업을 끝없는 충정과 헌신으로 받들어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바쁘신 속에서도 10여차례나 국가과학원을 찾아주시였으며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고 정력적인 령도로 우리의 과학기술을 새 세기 높은 령마루에로 올려세우시였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온 나라에 과학중시의 기풍을 세워주시고 과학연구기지들의 물질기술적토대축성에서 비약적발전을 이룩하도록 하시였으며 얼마 안되는 나라의 귀중한 자금을 현대공업의 중요핵심기술인 CNC화에 돌리시여 첨단산업발전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였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하여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는 우리 나라가 인공지구위성 제작 및 발사국으로, 당당한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용을 떨치고 이 땅우에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를수 있게 한 근본원천이였다.

건국의 첫 시기부터 지식인들을 한사람한사람 찾아주시고 뜨거운 사랑의 품에 안으시여 당과 숨결도 운명도 함께 하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대부대를 키워주시였으며 과학기술중시의 탁월한 정치경륜을 펼치시여 선군조선의 강성번영을 이룩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국가과학원에 모시여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태양의 축복속에 나라의 과학기술적잠재력과 위력을 세계만방에 떨치려는것은 온 나라 전체 과학자, 기술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소망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 1월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동상을 국가과학원에 정중히 모시여 과학자들이 늘 대원수님들을 뵈옵고 마음속진정을 터놓으며 사업하고 생활하게 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국가과학원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동상을 높이 모신 오늘의 대경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리심의 빛나는 결실이며 수령님과 장군님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려는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과 인민들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의 일대 과시로 된다.

연설자는 온 나라 전체 과학자, 기술자들과 천만군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였으며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끄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고무해주신다는것을 명심하고 더욱 분발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감으로써 주체혁명의 새로운 100년대를 승리와 영광의 년대로 빛내여야 합니다.》

연설자는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답게 언제 어디서나 절세위인들의 태양의 영상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끝없이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선군조선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순결한 량심과 도덕의리로 충정다해 받들며 천겹만겹의 성새, 방패가 되여 결사옹위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나라의 과학기술을 하루빨리 발전시킬데 대하여 주신 강령적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할것이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에게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 있다는 혁명적신념과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담대한 기상을 안고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에 주체과학발전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한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적재능과 열정을 총폭발시켜 눈부신 과학기술성과들을 내놓음으로써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을 굳건히 지키고 부강조국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하여야 한다.

연설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고 하면서 모두다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제막식은 《수령님과 장군님은 함께 계시네》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대한 해설을 듣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동상을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억척불변하다

우리 당의 붉은 기폭에 또 한돌기의 성스러운 년륜이 새겨지고있다.

근 70년에 달하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존함으로 단결하고 승리하며 전진하여온 영광스러운 로정이다.

오늘 우리 당이 선군혁명위업의 향도자로 빛을 뿌리고있는 근저에는 수령중심의 통일단결이라는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다. 백두에서 시작되고 준엄한 혁명의 년대들을 거쳐 끊임없이 강화되여온 당의 통일단결이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최상의 수준에서 다져지고있다.

위대한 단결의 전통을 세기를 이어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조선로동당은 권위있고 전도양양한 당으로 끝없이 위용떨칠것이다.

1

당의 통일단결은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이다. 혁명의 전위대이며 향도자인 로동계급의 당의 위력은 하나의 사상, 유일중심에 기초한 통일단결의 위력이다. 전당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정치적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불패의 혁명적당이란 그 어떤 천지풍파속에서도 끄떡하지 않는 가장 공고한 단결을 이룩한 당이다. 혁명하는 당은 통일을 생명보다 귀중히 여기면서 언제나 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이 문제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제일중대사로 틀어쥐고 용의주도하게, 완전무결하게 해결하여온 로숙하고 세련된 당이 우리 당이다.

조선의 혁명가들은 민족수난의 암담한 시기에 력사상 처음으로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참다운 단결의 시원을 열어놓았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은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전진한다는 진리를 내세우고 절세의 위인을 민족의 태양으로 받들어 《ㅌ.ㄷ》의 기치아래 뭉친 새형의 전위대오가 우리 당의 골간으로 되였다. 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기초도 사대와 교조, 파쟁을 타파하고 자기 수령의 사상과 로선대로만 싸운 주체형의 열혈투사들에 의하여 다져졌다. 가장 간고하고 시련에 찬 초행길을 헤치며 로동계급의 당건설사에서 전무후무한 혁명적단결의 원형을 마련해놓은것은 조선혁명가들이 쌓아올린 최대의 공적이다.

혁명의 개척기에 이룩된 위대한 단결은 두차례의 반제혁명전쟁과 두단계의 사회혁명, 사회주의건설의 실천투쟁속에서 더욱 확고해지고 억세여졌다. 장기성과 복잡성, 심각성에 있어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우리 당의 투쟁력사야말로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전당의 통일단결을 철통같이 다지며 그 위력으로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이룩하여온 긍지높은 력사이다.

로동계급의 당건설사가 백수십년을 헤아리지만 조선로동당처럼 창건의 첫 기슭에서 추켜든 단결의 리념을 변함없이 고수해온 당은 그 어디에도 없다. 우리 당이 지금과 같이 최강의 위력을 지니고 세계에 당당히 빛을 뿌리고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불패의 통일단결을 이룩한 우리 당의 존엄높은 모습에서 강성번영할 조국의 미래와 혁명의 최후승리를 확신하고있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하나의 중심, 수령중심에 기초한 위대한 단결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강철같은 통일단결은 당의 생명이고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유일중심은 단결의 핵이다. 당의 통일단결에는 반드시 핵과 같은 하나의 구심점이 있어야 한다. 똑똑한 중심이 없는 단결은 당의 본성적요구에도 맞지 않으며 그러한 단결은 오합지졸에 불과하다. 단결의 공고성, 불변성이자 그 중심의 확고부동성, 유일성이다.

당의 통일단결의 유일중심은 다름아닌 수령이다. 혁명의 최고뇌수인 수령을 떠나 그 어떤 다른 중심이란 있을수 없다.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은 수령의 위대성에 의하여 보장되며 수령의 사상과 령도에 배치되는 온갖 이색적이며 반동적인것을 쓸어버리는 투쟁을 통하여 굳건해진다.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나서심으로써 우리 당은 그 뿌리가 내리던 첫 시기부터 오직 하나의 중심에 의한 통일단결을 실현해올수 있었다. 우리 당에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의 권위는 언제나 절대적이였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유일무이한 지도적지침이였으며 수령님의 혁명방식, 령도방식은 드팀없는 활동방식이였다. 그처럼 어렵고 복잡하였던 창건직후와 전쟁의 나날, 전후시기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의 오물들을 청산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단호한 결단에 의하여 우리 당의 통일단결이 굳건히 고수될수 있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것은 백두밀림에서 기원이 열린 당의 통일단결위업을 계승완성하는데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된다. 이때부터 혁명적수령관을 근본핵으로 하여 전당에 수령의 사상체계,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워나가는 새로운 력사적진군이 다그쳐졌다.

위대한 장군님의 예리한 안목과 혁명적원칙성, 비상한 조직적수완에 의하여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에서 당안에 배겨있던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이 숙청됨으로써 우리 당은 마침내 유일중심이 확고한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 일신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전당의 김일성주의화가 힘있게 추진된 로정에서 우리 당은 수령의 사상과 존함으로 자주시대 혁명적당건설의 세기적모범을 창조해나가는 향도적력량으로 위용떨칠수 있었다.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단결은 혁명적당의 제일생명이지만 그것을 실현하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수령이 위대하고 전체 당원들이 자기 수령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를 때 이 력사적위업을 성취할수 있다. 사상과 령도에서 제일이시고 출중한 자질과 풍모를 지니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최고수위에 모시였고 수백만 당원들이 백두의 혈통밖에 모르는 일편단심을 간직하였기에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그 어떤 잡사상에도 오염되지 않고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가장 순결하고 공고한 단결로 될수 있었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수령과 전사들이 동지적사랑과 혈연의 정, 혁명적의리로 굳게 뭉친 숭고한 단결이다.

혁명의 전위투사들의 단결은 사상적단합, 조직적결합인 동시에 도덕의리적단결이여야 한다. 사랑과 정, 의리가 없이는 혁명가의 가장 큰 재부인 동지를 얻을수 없다. 정이 통해야 뜻이 통하고 뜻이 통해야 동지적관계가 맺어진다. 의무감이나 리해관계에 따른 실무적이고 산수적인 단합은 사상루각과 같다. 믿음으로 시작되고 사랑으로 굳세여지며 의리로 공고해지는것이 혁명적당의 통일단결이다.

사람들사이에 오고가는 사랑과 정, 의리의 최고정화는 수령과 전사들사이에 흐르는 믿음과 사랑, 정과 의리이다. 혁명전사들의 삶을 값높이 빛내여주고 그들을 영원한 동행자로 믿어주는 수령의 사랑과 믿음, 수령과 혈연의 정을 나누며 변함없이 령도자를 따르는 전사의 의리, 이것이 합쳐질 때 강철같은 통일단결이 이루어진다.

세계사회주의운동사에는 프로레타리아리념을 위주로 한 단결은 있었어도 사랑과 의리, 정으로 맺어진 진정한 단결은 없었다. 그러한 단결은 오래가지도 못하였고 력사의 모진 풍파도 이겨내지 못하였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력사는 숭고한 믿음과 사랑의 력사, 혁명적동지애의 력사이다. 우리 당의 첫 당조직—건설동지사에는 수령과 전사들이 동지적사랑과 혁명적의리로 뭉쳐 백색테로를 쳐갈기며 혁명의 진로를 개척한 단결의 기상이 어리여있다. 혁명앞에 다진 맹세 변치 말자는 어버이수령님의 불보다 뜨거운 동지적사랑과 언약, 수령님을 온넋으로 따르고 절대적으로 흠모한 혁명투사들의 인간적매혹과 신뢰심으로 하여 수령과 전사는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었다. 천만전사모두를 붉은기에 휩싸안아 온갖 육친의 정을 부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하늘같은 인덕, 장군님을 마음의 기둥으로 삼고 장군님을 따라 동지애의 천만리길을 걸어온 선군혁명대오의 충정과 의리는 우리 당이 혼연일체의 대화원을 이루게 한 자양분이였다.

서로 믿고 의지하는 신뢰심이 두텁고 진정이 통하는 혁명대오에는 순결무구한 의리의 세계가 지배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혁명의 한길을 함께 가는 동지의 대부대를 이룬 우리 당은 그 어느 나라 집권당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도덕의리적단결을 이룩하였다. 수령과 전사들이 한치의 간격도, 사소한 불일치도 없이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피도 숨결도 함께 나누며 혈연적뉴대를 두터이 하여온것, 령도자는 인민에게 믿음을 주어도 통채로 주고 인민은 령도자를 받들어도 백옥처럼 진실하게 받든것, 이것이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참모습이였다. 전체 당원들이 령도자를 어버이로 스스럼없이 믿고 의지하며 령도자의 품에 운명의 피줄기를 이어놓은 통일단결의 대풍모는 우리 당의 제일재부이며 크나큰 자랑이다.

믿음과 사랑은 우리 당의 영원한 단결의 철학이다. 하기에 우리의 천만군민은 기쁠때나 괴로울 때나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라고 부르며 그 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오직 당을 따라 선군혁명의 천만리길을 힘차게 걸어온것이다.

근 70성상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 당의 통일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최대의 힘을 넣어 억년 드놀지 않는 불패의 통일단결을 이룩한것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의 승리이다.

2

우리 당은 단결의 전통도 위대하지만 그 줄기찬 계승도 위대하다. 세대를 이어 당의 통일단결을 옹호고수해나가는데 백승을 떨치는 조선로동당의 존엄높은 모습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새로운 력사적전환기에 들어선 주체혁명위업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전면적으로 계승되여 줄기차게 전진하고있습니다.》

피눈물의 언덕에서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숭엄한 경지를 펼친것으로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뚜렷이 부각시킨 우리 당은 김일성-김정일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기치밑에 당의 통일단결을 그 어느때보다도 조직사상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철통같이 다지였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을 다그쳐온 기간은 우리 당력사에서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이 나날 항일의 혈전만리길에서 높이 발휘된 단결의 정신이 한치의 드팀도 없이 빛나게 계승되고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통일단결의 위력이 천백배로 강화된것으로 하여 우리 당과 혁명의 전도는 양양하다.

전당김일성-김정일주의화기치높이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순결체로 확고히 전환시킨것은 당의 통일단결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특기할 업적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강화발전시키신 영광스러운 당이다. 가장 걸출한 위인들을 모시고 수령이 가리키는 한길따라 력사의 방향타를 움직여온데 조선로동당의 높은 존엄과 권위가 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수령의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근본성격에는 추호의 변함이 있을수 없다.

전당의 조직사상적순결성보장은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의 생명이며 본태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신데 기초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강령을 선포하시고 전당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그 기본열쇠로, 선결조건으로 내세우심으로써 전당의 사상적일색화위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추진되게 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과 념원을 하루빨리 실현하는것을 당사업의 기본임무로 정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며 전체 당원들을 김정일애국주의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당건설과 당활동을 수령님과 장군님식대로 해나가는 우리 당의 고결한 충정은 천만군민이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와 영원한 혈맥을 잇게 하는 일심단결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혁명이 전진할수록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것은 더욱더 중대한 문제로 나선다. 우리 당은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의 시대가 펼쳐진 시기에 강철의 신념과 견결한 혁명적원칙, 비타협적인 투쟁으로 당안에 숨어있던 현대판종파분자들을 단호히 적발숙청하였다.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고 혁명대오의 순결성을 보장한것으로 하여 우리 당은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수령중심의 통일단결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다지는 사업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수행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 이것은 수령의 사상으로 일색화되고 수령의 유일적령도가 보장된 우리 당만이 지니고있는 최대의 영광이고 최고의 영예이다. 전체 당원들의 심장속에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안겨주신 주체의 신념, 주체의 피만이 맥박치는 우리 당은 불멸의 태양기를 진두에 높이 날리며 령도자의 사상과 위업에 끝까지 충직할것이다.

우리 당은 백두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하여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통일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져나가고있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백두에서 시작되였으며 백두의 혁명전통을 이어나가는 력사적투쟁에 의하여 굳건히 고수되여왔다. 백두의 혁명전통은 우리 당 강화의 근본명맥이다. 백두의 혁명전통에는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한 단결의 사상도 있고 원리도 있으며 혁명의 년대들마다 통일단결을 결사수호한 선렬들의 투쟁정신도 깃들어있다.

백두의 혈통, 백두의 혁명전통은 변할수도 진할수도 없다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신조이다. 오늘 우리 당이 꿋꿋이 이어가는 백두의 행군길, 여기에는 캄캄하였던 조선의 밤하늘에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한별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올린 항일의 그 전통, 당의 기초축성시기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령님의 유일한 후계자로 받들어모신 1970년대의 전통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따라 드팀없이 이어가려는 철석같은 의지가 맥박치고있다. 백두의 넋과 기상, 정신을 떼여놓고 수령중심의 통일단결의 강화발전에 대하여서도, 약동하는 우리 조국의 활력에 대하여서도 생각할수 없다.

백두산에 오르면 누구나 피어린 조선혁명이 어떻게 개척되고 승승장구하여왔는가를 실감하게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과 전국의 당책임일군들, 각계층 근로자들이 련이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를 진행하도록 하신데는 우리 당을 영원히 백두의 혈통만을 아는 수령의 당으로 빛내이시려는 숭고한 의도가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전당, 전군, 온 사회에 백두의 칼바람, 혁명전통교양의 불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치는 속에서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백두의 물과 공기처럼 정갈해지고 백두의 기상과도 같이 억세여지고있다.

오늘 우리의 천만군민이 《혁명무력은 원수님 령도만 받든다》,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와 같은 신념의 노래를 높이 부르고있는것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에 도전하는 불순이색분자들을 무자비하게 죽탕쳐버리려는 혁명적기개의 분출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마음과 마음이 백두산에로 끝없이 달려가고있기에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는 천겹만겹으로 뭉친 수령결사옹위의 성새가 굳건히 솟아있을것이다.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숭고한 정치를 펼치는 우리 당의 인민적령도는 천만군민이 령도자와 뜻도 지향도 숨결도 발걸음도 함께 해나가게 하고있다.

이민위천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한생의 좌우명이였으며 정치신조였다. 력사밖에 밀려났던 인민의 존엄을 하늘의 높이에 올려세우시고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업적과 혁명생애는 그 무엇으로써도 헤아릴수 없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모시는것처럼 우리 인민을 받들며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고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사회주의부귀영화를 안겨주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실록은 그야말로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헌신의 최고정화로 수놓아지고있다. 숭고한 인민관, 후대관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이 나라의 남녀로소모두를 한품에 안아 영광의 절정에서 빛내여주시는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며 언제나 인민의 편의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시고 인민의 꿈과 리상을 희한한 현실로 펼쳐주시는분이 우리 원수님이시다. 세상에 인민을 제일로 아끼시며 모든 사색과 활동의 시작도 끝도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에 두시고 혁명의 전진속도도 커가는 인민의 기쁨과 행복에서 헤아리시며 인민들에게 전설속의 무릉도원도 통채로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같으신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자애로운 어버이는 없다.

인민의 마음은 강요나 호소로써는 움직일수 없다. 인민을 위한 참다운 정치, 리상적인 정치를 펼치는 령도자를 인민은 스스로 믿고 한결같이 따르는 법이다. 오늘 우리의 천만군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인민이 사랑하는 령도자라고 친근하게 부르며 원수님을 당과 혁명의 최고령도자로 모신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심장으로 터치고있다. 이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대에 마련된 수령중심의 통일단결이 경애하는 원수님대에 사상의지적으로, 감정정서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승화되고있는데 대한 증시이다.

인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으면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의 버림을 받으면 백번 패한다는것은 혁명의 철리인 동시에 단결의 원리이다. 인민이 신뢰하고 따르는 령도자의 사상과 령도는 백전백승한다. 길지 않은 혁명령도의 나날에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숭고한 정치를 펼치시여 천만군민의 마음을 단번에 억세게 틀어잡으신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특출한 정치실력이 낳은 통일단결의 결정체이다.

인민이 영원하듯이 령도자와 인민이 한식솔을 이룬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영원하다. 전당이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해나가는 우리 당은 그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 해도 튼튼한 대중적지반에 지심깊이 뿌리박고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통일단결의 위력을 힘있게 떨쳐갈것이다.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새로운 력사적전환기에 수령중심의 통일단결이 최상의 경지에서 철통같이 다져진것이야말로 우리 당력사에 길이 빛날 특기할 사변이다.

3

오늘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섰지만 그것을 강화하는 사업은 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 혁명의 중대사이다. 전당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 사업은 어려운 사업인 동시에 혁명의 전진과 더불어 계속 밀고나가야 할 항구적인 사업이다. 우리 혁명앞에 중대한 국면이 펼쳐진 지금이야말로 이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야 할 때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100% 고수, 100% 계승완성은 우리 당의 통일단결지론이다.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것을 수령의 당건설의 근본원칙으로, 제일생명으로 틀어쥐고 더욱 강도높이 박력있게 해나가려는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는 투철하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현시기 우리 당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임무이며 수령중심의 통일단결강화의 기본요구이다.

오늘 당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을 이룩한다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전당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한다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우리 당과 혁명의 단결의 유일중심, 령도의 유일중심이시며 원수님의 령도는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의 무궁무진한 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을 령도하시는 첫 시기부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시며 천재적인 예지와 탁월한 정치실력,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민족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일대 전성기를 펼치시였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진군이 자주, 선군, 사회주의길을 따라 힘있게 다그쳐지고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국력이 비할바없이 높아지고있는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련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는 과학이고 진리이며 실천이고 승리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권위는 절대적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새로운 년대기우에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를 펼쳐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원수님밖에 그 누구도 모른다는 철석같은 신념, 원수님의 령도만 받들면 반드시 이긴다는 철리를 심장깊이 간직하고있다.

모든 당조직들은 전당과 온 사회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는 사업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당의 결정과 지시를 즉시에 접수하고 무조건 제때에 집행하는 강한 규률과 혁명적기풍을 확립하며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지펴올리기 위한 투쟁과 결부하여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보장하고 온갖 잡귀신들과 불건전한 요소들을 혁명의 불도가니속에서 정화하는 과정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전당을 진정한 전우부대, 참다운 동지부대로 만드는것은 당의 통일단결의 초석이다.

머나먼 혁명의 한길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동지애, 싸우는 한전호에서 피와 살, 목숨까지도 나누는 전우애로 뭉친 단결보다 더 강한 단결은 없다. 우리 인민군대가 당의 위업을 총대로 굳건히 담보해나가는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억척의 지지점이 되여 일당백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위용떨치고있는것은 전군이 최고사령관의 진정한 전우, 참된 동지가 되고있기때문이다. 당의 통일단결의 불패성과 위력은 전당이 인민군대와 같은 풍모를 지니는데 있다.

오늘도 우리의 전체 당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피눈물의 언덕에서 맞이한 새해의 첫아침 무쇠철갑사단을 찾으시여 인민군장병들과 팔을 끼고 기념사진을 찍으신 숭고한 화폭을 깊이 새기고있다. 전당과 온 사회가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신념과 의리를 끝까지 함께 하는 동지, 전우로 뭉치자는것이 천만군민의 심장에 울리신 백두령장의 호소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마음까지 합쳐 사랑하는 병사들과 인민들에게 가장 강렬하고 뜨거운 열과 정을 부어주시는 혁명적동지애, 혁명적전우애의 최고화신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은 동지애, 전우애는 조선로동당원들의 심장속에 령도자와 끝까지 생사운명을 같이할 불타는 맹세를 심어주고있다.

팔을 끼고 어깨를 겯는것은 제일 어려운 때 서로 믿고 의지하며 한번 다진 맹세, 일단 맺은 정과 의리를 절대로 변치 않는 동지, 총폭탄이 작렬하는 전호속에서 생사를 같이하며 날아오는 적탄도 서슴없이 막아나서는 불굴의 희생정신을 발휘하는 전우들사이에만 있을수 있는것이다. 전당에 이런 동지애의 세계, 전우애의 세계가 지배할 때 우리 당은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불패의 통일체로 더욱 강해질것이다.

당과 인민의 혈연적뉴대를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정치방식이다.

당의 통일단결은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의 지지와 신임을 받으며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조직동원할줄 아는 당만이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하지 않는다. 튼튼한 대중적지반이 없는 당은 바람앞에 선 초불이나 같다.

지금 우리 당은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다. 당을 따르는 우리 인민의 마음이 그처럼 대바르고 진실하며 열렬한것은 한없이 넓고 웅심깊고 따사로운 위대한 사랑의 품에 안겨 살고있기때문이다.

못난 자식, 상처입은 자식도 정을 다해 키워주시고 재생의 삶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은덕과 믿음에 끌려 이 나라 천만전사들이 원수님만을 우러러 따르고있다.

함께 온 길 새겨봐도 앞길을 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어머니당밖에 자기들의 운명을 지켜주고 행복을 꽃피워줄 품이 없다는것이 우리 인민자신이 스스로 내린 결론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엔 인민이 있고 인민의 마음속엔 원수님 한분만이 꽉 차있는 일심단결, 이것으로 하여 조선로동당의 통일단결이 견고해지고있는것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전당이 군중속에 들어가자!》는 구호밑에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킴으로써 인민들의 심장에 령도자의 뜨거운 정을 꽉 채워주어야 한다. 뼈를 깎아서라도 인민생활문제를 자신들이 맡아 풀겠다는 각오밑에 늘 무거운 짐을 지고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여야 한다.

현시기 당조직들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은 당사업의 총력을 인민의 리상과 념원을 실현하는데로 집중하는것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당책임일군들부터 인민들이 매일매일 꿈같은 행복속에 웃으며 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함에 투쟁목표를 지향하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바탕으로 백배의 힘을 모아 헌신분투하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은 로동당의 권위, 인민의 운명을 걸고 끝장을 볼 때까지 세도군들과의 투쟁을 강하게 벌려 일심단결의 성새에 자그마한 실금도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의 참모부인 당의 철통같은 통일단결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당건설업적이며 하루빨리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을 만방에 떨칠 우리 혁명의 강력한 추진력이다.

단결로 억척불변하고 단결로 투쟁과 변혁의 무진막강한 힘을 안아오는 위대한 당의 령도가 있는 한 우리의 전진과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당의 통일단결을 천백배로 다지며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빛나게 장식할 대축전장을 향하여 용기백배 힘차게 싸워나가자!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내 조국의 밝은 미래를 앞당겨가는 영광과 긍지 끝없이 넘쳐흐른다.
—만수대언덕에서— 본사기자 림학락 찍음

박봉주총리

황해남도 안악군과 배천군안의 농사실태 료해

【평양 10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박봉주내각총리는 황해남도 안악군 오국협동농장과 배천군 추정협동농장의 농사실태를 료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해온 황해남도의 농업근로자들이 당면한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총리는 안악군과 배천군안의 농사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투쟁성과를 적극 고무해주었다.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수확적기를 바로 정하고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와닥닥 끝낼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농업부문에서 종자와 로력, 영농자재를 적게 쓰면서도 수확고를 훨씬 높일수 있는 여러가지 앞선 영농방법과 농업과학기술성과들을 적극 받아들여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총리는 또한 순천석회석광산과 성산광산의 생산정형에 대하여서도 료해하였다.

박봉주총리 배천군 추정협동농장 농사실태 현지료해

향도의 당기따라 신심드높이 앞으로!

위대한 선군정치의 위력으로 우리 당의 권위, 공화국의 존엄이 비상히 떨쳐지는 경이적인 오늘 원대한 포부와 락관에 넘쳐 최후승리를 향하여 돌진하는 천만의 가슴에서 조선로동당에 대한 노래가 더 높이 울리고있다.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비길데 없는 민족적긍지와 환희로 사람들의 가슴에서 뜨거운것이 격랑치게 하는 성스러운 조선로동당기,

세기와 세기를 넘어 영광만을 광휘롭게 아로새겨왔으며 휘황찬란히 펼쳐진 선군혁명의 앞길에 펄펄 휘날리는 우리의 당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신뢰로 가슴부풀게 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원수님따라 선군혁명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갈 불타는 맹세로 피가 끓어번지게 하는 우리의 당기가 아니던가.

향도의 당기따라 승리의 천만리,

이는 하늘땅이 꺼져도 영원히 주체의 붉은기를 억세게 휘날려갈 우리 천만군민의 변하지 않는 신념, 영원한 동행자들의 일편단심이다.

* *

선군혁명의 궤도를 따라 민족의 강성번영을 위하여,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노도와 같이 전진하는 이 땅에 하나의 숭고한 시대정신이 도도히 굽이치고있다.

위대한 향도의 당기따라 신심드높이 가리라!

자기의 령도자에 대한 신뢰의 정이 최절정에 오르고 령도자와 열화같은 사상감정으로 융합되는 가슴벅찬 나날에 억년 변치 않을 마음의 기둥으로 세워진 이 철의 의지,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상에 온넋이 끌린 천만군민의 더욱 휘황찬란할 래일에 대한 락관도 이 한마디 말속에 다 담겨져있다.

불세출의 선군령장으로 만민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신 민족의 환희속에 선군혁명위업의 최전성기가 펼쳐지고있다.

향도의 당기따라 하늘땅 끝까지!

천만의 심장에서 울려나오는 이 충정의 목소리에는 그 어느 혁명, 그 어느 민족도 엮어보지 못한 가장 영광스러운 력사가 비껴있다.

《ㅌ.ㄷ》로부터 고고성을 터친 80여성상의 조선혁명사에서 최근 몇년간은 결코 길다고 할수 없다.

하지만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들,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들이 온 우주와도 바꿀수 없는 대통운을 받아안고 민족만대번영의 대통로를 줄달음쳐 달려온 특기할 사변적인 날과 날이였다.

철의 신념과 비범한 예지가 넘쳐흐르는 담대한 영상, 온 우주를 담고있는 빛나는 안광, 천지를 휘여잡는 기백과 열정이 차넘치는 기상, 인간적매력이 넘쳐나는 인자하신 모습…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께서는 력사무대에 나서신 그때부터 사람들을 순식간에 매혹시키신 절세의 위인이시다.

지금도 사람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연설의 자자구구를 새겨보며 무한한 격동을 금치 못한다.

우리의 위업은 정당하며 진리로 뭉쳐진 조선의 힘은 무궁무진합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온 나라 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우리의 창창한 앞날을 축복해주시고 천하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과 불패의 군민대단결이 있으며 당의 위업을 량심과 의리로 받들어나가는 충직한 인민이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것입니다!

주체혁명위업의 밝고 창창한 앞날에 대한 확신이 넘쳐나는 그이의 위대한 선언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주체혁명위업, 이는 그 무엇에 비길데 없는 성스러운 위업이다.

우리는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한생토록 걸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변함없이 나아감으로써 **김일성**동지의 후손,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로서의 사명과 의리를 다하여야 한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드리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최대의 경의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그이는 위대한 천재성, 영명성, 령도력으로 조선로동당을 명실공히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그 길에서 력사의 그 어느 정치가도 이룩할수 없는 특출한 업적을 이룩하고계시는 희세의 위인이시다.

그이의 사고의 령역에는 삼천리강산만이 아닌 온 지구가 포함되여있다.

그 비범한 영명성으로 우리 당과 인민의 앞길에 조선로동당과 더불어 영생하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는 성스러운 수령영생위업의 장을 장엄히 펼치시고 수령님식, 장군님식으로 혁명의 앞길에 인민행이라는 거대한 기관차를 앞세우신 우리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 국가건설과 혁명무력건설에서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그대로 이어나가며 당건설과 국가건설, 군건설을 철두철미 수령님식, 장군님식대로 해나가야 한다.》

수령은 언제나 인민과 함께, 인민은 애오라지 수령과 함께!

이것은 주체혁명의 거창한 대하에 흐르는 위대한 혁명철학이며 조선혁명의 천하지대본의 억년궤도이다.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께서 선택하신 길은 오직 한길,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따르는 길, 대원수님들께서 걸으신 길이다.

력사의 그 길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영원히 함께 살며 혁명할 신념과 의지로 충만된 천만군민의 절절한 소원을 성취시켜주신분이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이시다.

조선로동당은 영원한 **김일성**동지의 당이라는 신념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우리 당을 명실공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길에 온갖 심혈을 다 바치신 어버이장군님,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의도대로 하며 하나에서 백, 천까지 **김정일**동지식으로 해나가려는것,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드팀없는 신념이고 의지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을 떠나서 **김정일**동지의 당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당의 위업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는것이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영원한 일편단심이다.

이 열화같은 일편단심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의 지도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신것은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진로를 뚜렷이 명시하시고 그 수행에로 천만군민을 총궐기시킨 정치적사변이라고 선언하신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이시다.

여기에 추억깊은 이야기가 있다.

당기를 바라보실 때마다 인민의 아들로 더 많은 일을 할 결심으로 심장을 불태우신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그 어느때보다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슴을 더욱 불태우던 이태전 10월 어느날이였다.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나는 지금 장군님의 유훈가운데서 집행하지 못하고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관철해나가고있습니다. 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신것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특기할 정치적사변으로 됩니다. 장군님을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여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는 근본담보가 마련되게 되였습니다. 우리 당이 지닌 높은 존엄과 령도적권위도 장군님의 존함과 결부되여있으며 당의 령도밑에 이룩된 주체100년사의 위대한 승리와 기적도 장군님의 성스러운 한평생과 잇닿아있습니다!…

위대한 승리와 거창한 변혁을 아로새겨온 조선로동당의 불멸할 력사의 본질을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위대한 신념의 분출이였다.

하여 천만의 심장을 매혹으로 끓어번지게 하는 희세의 위인, 인간태양이신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을 우러러 어버이장군님의 영원한 전사, 제자들이 격정의 눈물을 흘리며 더더욱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깊이 간직하게 되였다.

로동계급의 당은 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때에만 불패의 당으로 될수 있다고 하시면서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자주시대의 혁명적당의 빛나는 상징이며 승리의 기치인 조선로동당기를 한생토록 사랑하시며 휘날려오신 어버이장군님,

마치와 낫과 붓을 새긴 우리의 당기에는 또 얼마나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는것인가.

몇해전 8월 어느날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조선로동당기발을 혁명의 군기로 높이 들고나가야 합니다!

조선로동당기발은 우리 혁명의 군기입니다!

조선로동당기에 대한 강렬한 사랑의 감정으로 우리에게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와 같은 훌륭한 노래가 있는것을 더없는 자랑으로 여기시는분이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이시다.

혁명가의 한생은 어떻게 빛나야 하는가?

이 물음에 붉은기를 펄펄 휘날려가는 한생으로 되여야 한다는 철학적대답을 주는 우리 당기에 대한 사랑으로 오래전에 나온 노래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를 더욱 높이 떠올려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해와 별 빛나는 맑은 하늘에》, 《인민의 운명을 간직한 기발》, 《향도의 이 기발 따르는 길에 이 세상 못 넘을 령이 없어라》, 《이 기발 세대를 이어 날린다 목숨은 버려도 우리 영원히 주체의 당기를 놓지 않으리》…

철학적깊이가 있고 호소성이 강한 노래의 구절구절을 음미해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이 노래에는 자기의 운명을 우리 당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따르는 인민들의 진실한 감정이 살아 맥박치고있습니다.

이 노래를 얼마나 중시하시였으면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가사의 중요대목에는 밑줄을 그어가며 새기고 또 새기시였으랴.

우리 당력사에 길이 빛날 뜻깊은 그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은 곧 우리 수령님이시고 장군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민은 남녀로소 할것없이 혁명의 어려운 년대, 폭풍우를 다 겪으면서도 우리 당을 그 무엇보다도 더 신뢰하고 따라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조선로동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조선로동당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숭엄한 그 감정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고귀한 재부입니다!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이신 조선로동당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따르는것이 우리 시대의 유일한 진리이고 정의이기에, 우리의 위대한 승리이기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이끌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따라나서고 그 길에서 사나운 격랑도 무수히 넘고 헤쳐온 우리 천만군민의 가슴에 불덩어리가 이글거리게 하는 우리 원수님의 말씀이 아니던가.

이런 숭엄한 격정에 휩싸여있는 일군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나는 이 노래를 실무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정말 생각되는바가 많습니다. 《인민의 운명을 간직한 기발》이라는 가사에도 있듯이 우리 당은 인민들의 운명을 책임지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남녀로소 할것없이 당기발을 바라보면서 온갖 시련을 이겨냈으며 우리 당을 더 굳게 믿고 따르고있습니다. 이런 좋은 인민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것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나는 노래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의 가사를 옮겨쓰면서 인민들의 운명을 간직한 당기발을 들고있는것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 당일군들을 인민들이 보고있다는데 대하여 생각하였습니다. 당일군들은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어머니당의 당일군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스스로 자각하여야 합니다. 당일군들은 자기의 위치와 책임감을 더 깊이 자각하기 위해서도 노래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를 머리에 새겨넣어야 합니다!

이런 위대한 인간태양, 스승에게 과연 누가 심장을 송두리채 맡기고 따르지 않을수 있으랴.

우리의 **김정은**동지,

그이는 천만군민이 자기의 운명과 미래, 민족의 장래와 세계의 평화를 통채로 맡기고 대를 이어가며 따르고 받들 위대한 정치가이시다.

먼발치에서 우러러뵈옵기만 하여도 눈굽은 뜨겁게 젖어들고 풍랑도 용감무쌍히 헤쳐넘을 힘이 용솟음치게 하는 열의인, 정의인,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과 함께라면 지구를 통채로 들어올릴만 한 힘도 솟고 무한히 행복하다.

그이이시자 곧 정의이고 진리이기에, 위대한 승리이기에 해바라기처럼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그이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것이며 그 길에서 고생도 달게 여기는것이다.

그 품을 떠나서는 순간도 살수 없는 인민이기에 우리는 그이만을 신뢰하며 원수님과 함께라면 사나운 격랑도 용감무쌍히 헤쳐넘는것이다.

우리의 **김정은**동지,

그이의 비범한 위인상은 우리의 휘황찬란한 미래이며 그이의 비상한 정치실력은 우리의 락관, 최후승리의 담보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여야 한다. 이는 우리 천만군민의 신념이고 량심일뿐아니라 조선혁명의 영원한 승리철학이다.

비오나 눈오나 바람부나, 깊은 밤에도 변함없이 한본새로 쉬임없이 펄럭이는 우리의 당기,

당기의 이런 모습이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과 함께 시련의 풍파도 헤치고 민족만대번영의 주로를 활기있게 열어온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에 뿌리내린 억척불변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는 정의이고 진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승리와 영광의 위대한 기치이시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없으면 조선도 없고 자주화된 세계도 없다.

천만의 철의 대오가 한마음한뜻이 되여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길이 어버이장군님의 한평생이 어린 성스러운 조선로동당기를 더 펄펄 휘날리게 하는 길이다.

우리에게는 인민의 운명을 간직한 조선로동당기를 진두에서 휘날려가시는 백전백승의 선군정치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신다.

강철의 선군령장이시며 만민의 자애로운 태양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백두산대국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향도의 당기를 따라 천만의 대오가 최후승리를 향하여 신심드높이 가고있다.

불세출의 선군정치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진두에 높이 모시고 당과 군대와 인민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 광명한 미래에로 노도쳐 전진하는 우리의 진군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한다.

본사기자 량 순

군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새기고있다. －창성군에서－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위인과 명언

주옥같은 명제, 명구, 명언들로 일관된 절세위인들의 가르치심은 우리 일군들의 사업과 생활의 좌우명으로 되고있으며 지난 수십년간 혁명실천속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발휘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을 유일사상체계, 유일적령도체계가 확고히 서고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힘에 의거하여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하늘아래 첫 동네로 불리우는 북부고산지대의 어느 한 역에서 있은 일이다.

하루종일 가도 렬차에 오르내리는 길손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인 인적드문 외진 역에 뜻밖의 경사가 났다.

철도성예술극장(당시) 배우들이 깊은 산중초소에서 누가 알아주건말건 깨끗한 량심으로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 묵묵히 한생을 바쳐가는 이 역의 철도일군들과 가족들을 찾아왔던것이다. 예술극장 배우들은 그들을 위하여 공연을 진행하였다.

그날 밤 이곳 철도일군들과 가족들은 좀처럼 잠들지 못하였다. 자기 일터와 집집마다에 뜨겁게 흘러드는 위대한 장군님의 다심한 사랑과 은정이 가슴에 미쳐왔기때문이다.

어느날 철도성 정치국의 한 일군을 만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철도부문의 당정치사업실태를 료해하시였다.

철길을 따라 온 나라에 널려져 임무를 수행하는 철도일군들의 특성에 맞게 당정치사업을 참신하고 실속있게 할데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득 우리 나라에는 북계수역과 같은 외진 작은 역들이 많은데 그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치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일군에게 그런 역들에 가보았는가고 물으시였다. 뜻밖의 물으심에 일군은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그의 마음을 헤아려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무리 바빠도 외진 곳을 먼저 찾아가 그곳 수송일군들과 함께 렬차를 맞고보내면서 초소를 무사고로 지켜가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주면 몇십번 강연을 하는것보다 더 큰 고무를 주게 될것이라고 이야기하시였다.

잠시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철도성예술극장에서 도시에서만 공연하고있으며 일부 사람들이 예술선전대도 아닌 예술단이 몇사람을 놓고 공연하는것은 《체면》이 서지 않는다, 채산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있는 사실에 대하여서도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철도성예술극장은 철도로동계급을 위해 나온 예술극장이기때문에 마땅히 철도로동계급에게 복무하여야 한다. 100명의 예술인들이 한적한 외진 철길초소를 지키는 몇명의 철도종업원들과 그 가족들을 찾아가 공연을 해도 그것은 좋은 일이다. 우리는 사상사업의 성과를 절대로 돈으로 계산하려 하여서는 안된다. …

그이의 말씀은 일군의 심장의 벽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사상사업의 성과를 절대로 돈으로 계산하려 하여서는 안된다!

혁명과 건설에서 사람들의 사상이 기본이며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는 사상사업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심오한 뜻이 우리 장군님의 이 명언에 다 담겨져있는것이 아닌가.

장장 수십년을 헤아리는 우리 장군님의 당건설령도사의 갈피에 새겨진 주옥같은 명언들은 헤아릴수 없이 많다.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당이다.》, 《우리 당은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이끌어주고 보살펴주는 진정한 어머니당이다.》, 《당일군이 걸음도 많이 걷고 밥잠도 덜 자면서 고생을 하면 인민들이 그만큼 행복해진다.》…

우리 일군들이 사업하는 과정에 걸음이 더딜세라 떠밀어주고 이끌어주며 길을 헛갈릴세라 앞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은 참으로 귀중한 지침이다.

본사기자 리금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에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참가자들을 환영하여 연회 마련

【평양 10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 온 나라가 우리의 미더운 체육선수들이 안아온 장쾌한 승전의 기쁨으로 들끓고있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에서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참가자들을 환영하여 6일 목란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장은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일으키시며 주체의 체육강국을 건설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으로 설레이고있었다.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여 훌륭한 경기성과로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떨친 녀자축구선수들을 비롯한 체육선수들과 감독들, 일군들이 연회에 초대되였다.

황병서동지, 현영철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최룡해동지, 박도춘동지, 김양건동지, 김평해동지, 로두철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김수길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렴철성, 오금철, 리종무 조선인민군 장령들, 경기대회에 참가한 종목별협회 위원장들, 후원단체 책임일군들, 관계부문 일군들, 선수들의 가족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최룡해동지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임에 따라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승의 개가를 련이어 올리고 돌아온 선수들과 감독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세계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며 우리의 체육선수들이 이룩한 쾌승은 체육강국에로 비약하는 선군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과시한 특기할 사변이며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드높이 강성국가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힘있게 고무추동한 전인민적인 대경사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나라의 체육발전을 위하여 크나큰 심혈을 바치시며 온갖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번 경기대회를 앞두고 축구선수들의 검열경기도 몸소 지도해주시고 우리 체육인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신데 대하여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우리 선수들의 가슴마다에 간직된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 원수님께 기어이 승리의 보고를 드리겠다는 충정의 일념은 모든 육체적극한점을 이겨내고 우승의 단상에 오를수 있게 한 힘의 원천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손길아래서 백두의 담력과 배짱, 무한대한 슬기와 용맹을 키운 우리 체육선수들은 주체적인 경기전법과 집단주의정신, 완강한 투지와 인내력을 발휘하여 맞다든 상대들을 압승하고 람홍색공화국기를 높이 휘날렸다.

우리의 선수, 감독들은 이번 경기대회에서 련이은 승전포성을 터쳐올림으로써 아시아의 최강팀, 최강자로서의 당당한 실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으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과 평화를 도모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어머니당에 금메달통장훈의 자랑찬 선물을 마련하고 자기를 키워주고 내세워준 조국과 인민의 기대에 훌륭히 보답한 선수, 감독들이야말로 온 나라가 떠받들어야 할 민족의 장한 아들딸들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경기성과를 안아온 선수들과 감독들의 위훈을 잊지 않을것이며 오늘의 이 력사적인 사변은 주체체육발전사에 뚜렷이 아로새겨지게 될것이다.

연설자는 우리 나라를 하루빨리 체육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모든 체육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언제나 심장깊이 간직하고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결사의 각오와 의지로 마음을 벼리며 높은 목표를 향해 계속 돌진하여야 한다.

백두의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더 많은 땀을 흘림으로써 이번에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앞으로도 아시아의 패권, 세계의 패권을 다투는 국제경기들에서 금메달로 우리 조국의 불패의 기상과 위용을 더욱 자랑차게 떨쳐야 한다.

주체체육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으며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슬기롭고 용감한 체육인들이 있기에 우리 조국은 세계적인 체육강국으로 솟아올라 온 누리에 빛을 뿌릴것이다.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체육인들의 자애로운 스승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안녕을 삼가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연회에서는 만수대예술단 삼지연악단 예술인들의 공연이 있었다.

연회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따라 체육강국에로 비약하는 선군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갈 참가자들의 드높은 열의가 차넘치는 속에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171호 주체103(2014)년 9월 30일

모범적인 단위들에 2중3대혁명붉은기,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자라났으며 맡겨진 혁명과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한 단위들에 2중3대혁명붉은기, 3대혁명붉은기를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2중3대혁명붉은기

평양블로크공장 부재생산직장

3대혁명붉은기

김정숙평양방직공장 견방종합직장
중구역도시시설관리소 가로2작업반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점판암광산 공무작업반
안주시 남칠협동농장 제5작업반
천마군 대하협동농장 제1작업반
운산군 부흥협동농장 제2작업반
은천군 안리협동농장 제7작업반
안악군 월정협동농장 제2작업반
신천군 사창협동농장 청년작업반
연산군 읍협동농장 제3작업반
상원군 흑우농장 남새작업반
사리원시원림사업소 양묘작업반
희천시 마선협동농장 제4작업반
룡림군 후지협동농장 제1작업반
화대군 읍협동농장 제4작업반
명간과수농장 장덕분장 제2작업반
경원군 동림협동농장 제2작업반
온성군 읍협동농장 제2작업반
단천시 신풍협동농장 제2작업반
정평군 률성협동농장 제3작업반
고원군 락천협동농장 제1작업반
함주군 련포협동농장 제5작업반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공작기계직장
곽산역
함흥철도건설려단 생필중대
조선중앙통신사 출판처 경흥상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172호 주체103(2014)년 9월 30일

모범적인 학교들에 2중영예의 붉은기,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자라났으며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을 통하여 학교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하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강성조선의 유능한 혁명인재로 키우는데서 모범적인 학교들에 2중영예의 붉은기, 영예의 붉은기를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2중영예의 붉은기

선교구역 산업소학교
청진시 송평구역 서항소학교

영예의 붉은기

은산군 천성소학교
함흥시 회상구역 리화소학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선군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과시한 승리자들에게 다시한번 열렬한 축하를!

온 나라가 그대들을 뜨겁게 얼싸안는다

10월 5일,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체육인들을 맞이하는 수도의 거리는 환영일색으로 단장되고 손에손에 꽃다발을 들고 연도에 달려나온 각계층 인민들의 얼굴마다에는 환희와 격정의 감정이 뜨겁게 흐르고있었다.

지켜선 초소와 일터는 달라도 환영의 꽃물결을 펼친 사람들의 마음속에 고동치는 생각은 하나였다.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우리 선수들이야말로 조국의 명예와 존엄을 만방에 떨치고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기상과 위용을 누리에 빛내인 장한 애국자들이며 조국의 긍지높은 아들딸들이라는 그것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체육선수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겠다는 굳은 각오, 완강한 투지와 인내력을 가지고 빠른 속도로 경기를 진행하여야 하며 경기에서 평시에 련마한 기술과 전술을 능란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조국과 인민은 어떤 사람들을 제일 사랑하며 긍지높이 내세워주는가.

10월의 우리 조국땅우에 펼쳐진 환영의 꽃바다는 그것을 뚜렷이 증명해주었다.

승리자들의 앞가슴에 빛나는 영예의 금메달, 거기에는 조국의 존엄을 걸고 경기마다에서 강한 인내력과 투지로 용감하게 싸운 우리 선수들의 애국정신력이 무겁게 실려있었다.

그리고 또 어려있었다. 자기들이 나서게 될 경기장을 조국의 존엄이 판가름되는 포성없는 결전장으로 여기며 맞다드는 상대들을 모두 물리치기 위해 훈련에서 우리 선수들이 흘려온 후더운 땀방울들이.

우리의 귀전에 얼마전 체육성의 한 일군이 들려주던 이야기가 쟁쟁히 울려온다. 이번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은 하나같이 열정가들이고 이악쟁이들이라고, 높이 세운 훈련계획을 수행하기 전에는 훈련장을 떠나지 않는 강의한 선수들이라고 자랑하던 그 이야기가 여운깊이 우리 가슴을 파고드는 것은 무엇때문인가.

승리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터에서 진행하는 직장별, 작업반별체육경기에서 이기자고 하여도 헐치 않은데 국제경기에서 맞다드는 만만치 않은 상대들을 물리치고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자면 훈련에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야 하는가를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을것이다.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우리 선수들이야말로 경기장에서의 순간순간을 위해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훈련주로를 땀으로 적시며 달려온 의지의 인간, 열정의 인간들이다.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하나의 새 동작을 완성하기 위해 조마우에서 새날을 맞이한 체조선수도 있고 부상을 당한 몸이지만 훈련장을 떠나지 않고 강의한 의지로 곤난과 싸워이기며 훈련에 박차를 가하여 이번 경기대회에서 끝내 세계신기록을 수립한 력기강자도 있다.

만나보면 수수하고 소박한 우리 선수들이 훈련에서도 경기에서도 그처럼 놀라운 힘과 열정을 발휘하게 한 기적의 원천은 무엇인가.

이번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한 우리 선수들이 지난 9월 27일 인천에서 진행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그리는 밤》모임에 대한 이야기가 뜨겁게 떠오른다.

평양의 하늘을 우러르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가슴 불태운 우리 선수들,

낳아준 부모도 미처 헤아리지 못한 재능의 작은 싹들을 찾아 꽃피워주고 키워주신 품, 사랑을 주시고 정과 믿음을 안겨주시며 온 나라가 다 아는 체육명수들로 키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을 절절하게 그리며 우리 선수들이 심장을 합쳐 부른 《뜨거운 정》, 《그이 없인 못살아》, 《불타는 소원》의 노래선률들도 귀전에 쟁쟁히 울려오는듯싶다.

그렇다. 우리 선수들은 사상의 힘, 애국정신력으로 싸워이겼다.

《이번에 북의 선수들은 하나같이 사상을 강조하였다. 즉 사상의 힘이 메달을 따게 된 원동력이라는 말이다. 이는 달리 해석하면 정신력이라는 말로도 풀이된다. …》

남조선의 한 인터네트신문에 실린 이 글에도 있듯이 우리 선수들이 안아온 오늘의 승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믿음을 안고 싸워이긴 사상의 승리, 정신력의 승리이다.

지금 우리 인민들은 일터와 가정 그 어디에서나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승하고 돌아온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운다.

온 나라의 체육인들은 이번 아시아경기대회 우승자들처럼 강의한 정신력과 높은 기술로 앞으로의 경기들에서 조국의 영예, 민족의 존엄을 더 높이 떨칠 결의로 가슴을 불태우고있으며 조선속도창조열풍이 몰아치는 대건설전투장들에서는 우리 체육인들이 발휘한 불굴의 투지와 기상으로 당이 맡겨준 전투목표들을 제시간내에 완벽하게 관철할 결사의 각오로 총돌격전을 벌리고있다.

이 나라의 어머니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조국의 영예를 빛내인 선수들처럼 경애하는 원수님께 승리의 보고를 드리고 인민의 사랑을 받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절절히 당부한다.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이 시상대에 올라 애국가의 장중한 선률속에 게양되는 람홍색공화국기발을 눈물속에 우러르며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은 참으로 눈물없이는 볼수 없는 감동적인 장면이였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지니고있는 고결한 사상정신세계를 더 잘 알게 되였고 우리도 그들처럼 뜨거운 조국애를 안고 석탄생산에서 혁신적성과를 이룩하자고 모두가 분발하여나섰습니다. 장한 일을 하고 돌아온 선수들에게 우리 탄부들의 인사도 꼭 전하여주십시오.》

이것은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서창청년탄광 지배인 정성룡동무가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의 우승소식에 접하고 격정을 금치 못하며 본사편집국으로 보내온 편지의 구절이다.

어찌 그 하나만의 심정이랴. 장하고 미더운 우리의 체육선수들에게 보내는 인민의 감사, 인민의 축하가 여기에 력력히 어려있다.

조국의 미더운 아들딸들을 다시한번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한다.

비약하는 선군조선의 힘과 기상을 만방에 떨치고 최후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크나큰 열정과 투지를 안겨준 자랑스러운 우리의 체육인들을 인민은 뜨겁게 얼싸안으며 시대의 단상에 높이높이 내세운다. 그들처럼 사랑하는 조국을 만방에 빛내일 우리 인민의 심장의 맹세도 더 뜨겁게 불타오르는 내 조국의 10월이다.

본사기자 강 진 형

공화국기는 무엇으로 빛나는가

노래와 함께 싸워이겼다

경기대회 전기간 우리의 녀자축구선수들은 숙소와 경기장사이를 오갈 때에 언제나 노래를 불렀다. 6번 김은향선수의 선창에 따라 주장인 10번 라은심선수, 3번 허은별선수를 비롯한 선수들모두가 힘차게 불렀다.

훈련의 나날에도 감격에 목메여 부르군 하던 《그이 없인 못살아》, 《불타는 소원》…

이번 경기대회 남자력기 56㎏, 62㎏급경기들에 참가한 엄윤철, 김은국선수들이 추켜올리기 세번째들기에 나섰을 때는 이미 우승이 확정되여있던 상태였다.

더우기 김은국선수는 끌어올리기에서 아시아경기대회기록과 아시아기록, 세계기록을 갱신하는 혁혁한 성과를 이룩하였었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시대의 명곡들은 우리의 미더운 처녀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맹을 안겨주었고 련전련승에로 떠밀어주었다.

10월 1일 우리 선수들을 태우고 결승경기장으로 떠난 뻐스안에서는 또다시 노래소리가 터졌다. 1950년대 조국수호정신이 세차게 맥박치는 노래 《승리자들》,

노래를 부를수록 전승세대의 그 정신을 이어 기어이 조국을 빛내일 필승의 기상이 우리 선수들의 심장을 꽉 채웠다. 그 정신, 그 기상으로 녀자월드컵과 아시아컵을 다같이 보유했다는 일본팀을 3:1로 타승하고 람홍색공화국기를 높이 올렸다.

노래로 시작되고 노래로 승리를 떨쳐온 우리 혁명의 고귀한 전통은 이렇게 체육에서도 자랑찬 승리를 낳았다.

한계가 없는 애국의 열정

우리 조국은 이겨도 크게 이겨야 한다.

이 비상한 의지는 놀라운 화폭을 펼쳐놓았다.

추켜올리기 세번째들기에서 엄윤철선수는 특기를 살려 자기 몸무게의 3배가 넘는 170㎏을 기운차게 들어올림으로써 세계신기록을 세웠다. 김은국선수 역시 178㎏을 박력있게 들어올려 2012년 런던올림픽경기대회에서 자기가 세운 종합기록을 련속 갱신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당의 품속에서 로력영웅으로, 인민체육인으로 성장한 체육인들이 폭발시킨 애국적열정은 조선속도창조로 세계를 압도해나가려는 민족자존의 정신력으로 들끓는 조국의 위용을 힘차게 떨쳤다.

30분과 금메달

이번 경기대회 탁구경기에 참가한 우리 나라의 김혁봉선수가 어느날 한차례의 남자복식경기를 끝낸 후에 있은 일이다. 그때 김혁봉선수는 김정선수와 함께 혼성복식경기를 위한 자체훈련을 하게 해줄것을 감독에게 제기하였다.

탁구종목에서만도 여러 세부종목경기들이 치밀하게 맞물려 진행되고있는 조건에서 이때 일정에는 훈련이 포함되여있지 않았다.

하지만 최후승리를 위해 그처럼 심장을 끓이는 김혁봉, 김정선수들을 대하는 감독의 가슴에는 뜨거운것이 솟아올랐다. 이렇게 되여 일정에도 없던 30분동안의 훈련이 벌어졌다. 이번 경기대회에 참가한 우리 탁구선수들모두가 그들의 훈련상대가 되기도 하면서 함께 열정을 쏟아부었다.

참으로 조국을 위한 심장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른 30분이였다. 그 한초한초와 더불어 필승의 신심을 더욱 굳게 다진 우리의 김혁봉, 김정선수들은 혼성복식경기에서 맞다드는 상대팀들을 통쾌하게 물리치고 마침내 조국의 금메달을 긍지높이 안아올렸다.

본사기자 오 철 룡

다음번 금메달은 우리가

기관차체육단에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이룩한 성과에 고무된 기관차체육단의 전체 일군들과 감독, 선수들이 더욱 기세충천하여 목표를 더 높이 세우고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체육사업에 큰 힘을 넣어 나라의 체육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대회에서 기관차체육단의 선수들은 평시에 련마한 기술을 높이 발휘하여 2개의 금메달을 포함하여 모두 7개의 메달을 획득하였다.

기계체조 평균대운동에서 1등의 영예를 지닌 김은향선수는 어머니조국의 믿음과 사랑에 금메달로 보답할 일념을 안고 경기에 출전하여 세계적으로 제일 난도높은 동작을 실수없이 대담하게 수행함으로써 공화국기를 휘날리게 되였다.

력기경기에 출전한 김은주선수는 선군조선의 위용을 남김없이 과시하려는 야심만만한 배짱으로 싸워 세계신기록을 세웠다.

이밖에도 려은희, 조복향선수들을 비롯하여 여러명의 기관차체육단 선수들이 이번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여러개의 은메달과 동메달을 수여받았다.

조국이 기억하고 인민이 사랑하는 훌륭한 선수들을 수많이 키워낸 기관차체육단,

지금 기관차체육단 일군들과 감독, 선수들의 열의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단장 김태성동무의 말에서 우리는 기관차체육단의 앙양된 열의와 기세충천한 훈련열풍을 엿볼수 있었다.

《이번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전과정이 보여준것처럼 우리 체육의 발전전망은 확고합니다.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현실로 꽃피우는데 자신의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치겠습니다.》

이것은 김태성단장만이 아닌 체육단의 모든 일군들과 감독, 선수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기계체조책임감독은 이번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거둔 성과에 대한 소식에 접한 선수들이 기어이 금메달을 쟁취할 야심과 각오를 안고 훈련에서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고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그러면서 다음번 국제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하기 위해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겠다고,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는 우승자들을 더 많이 배출하기 위해 훈련계획을 무조건 수행하겠다고 말하였다.

력기선수들도 세계력기계를 뒤흔들 야심만만한 배짱을 안고 더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훈련시간을 쪼개가면서 기술을 련마해나가고있다.

체육단의 일군들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감독, 선수들의 정신력을 총발동시키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으며 선수들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해주어 그들이 오직 훈련에만 전심하게 하고 훈련강도를 더욱 높여나가고있다.

이렇듯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이룩한 훌륭한 경기성과는 온 나라 체육인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백배해주고있다.

글 및 사진 지혁철

승전소식과 더불어 꽃펴난 이야기

두번이나 갱신된 석탄증산계획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 남덕탄광 10갱의 탄부들은 선군절까지 올해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다.

자랑많은 이 갱에 이번 아시아경기대회기간 또 하나의 자랑이 늘어났다.

지난 9월에 증산목표로 세운 계획보다 2400여t이나 더 많은 석탄을 캐낸것이다.

람홍색공화국기를 창공높이 날리는 우리 체육인들의 승전소식을 어떻게 보통날의 례사로운 실적으로 받아안겠는가.

한삽의 석탄이라도 더 캐지 않고서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

갱장 차봉화동무와 고속도굴진소대 소대장 로창호동무를 비롯한 갱의 전체 탄부들과 일군들이 떨쳐나섰다.

우리 녀자축구팀이 일본팀을 누르고 영예의 우승을 한 소식이 전해진 그날에는 초기증산계획보다 근 2000t이나 더 높이 세웠던 10월 석탄증산계획을 또다시 갱신하였다.

현재 이들은 하루과제를 125%이상씩 해제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온 나라에 휘몰아치는 체육열풍이 안아온 증산의 불길이다.

본사기자 려 명 희

건설장에 울려퍼진 환호성

지난 1일 밤 가슴을 조이며 기다리던 우리 나라 녀자축구팀의 결승경기소식이 날아들자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의 곳곳마다에서는 만세의 환성이 터져올랐다.

통쾌하기 그지없는 승전의 소식에 접한 건설현장은 명절분위기에 휩싸였다.

곧 텔레비죤방송으로 방영한다는 소식을 저저마다 전화기를 들고 가족, 친척, 친우들에게 알리며 텔레비죤앞에 마주앉았다.

그 시각은 2일 0시, 전투원들은 피곤도 잊고 텔레비죤을 보면서 목청껏 응원도 하였다. 세번째로 통쾌한 득점이 나는 순간엔 《꼴!—》하고 웨치며 서로 얼싸안고 돌아가기도 했다.

드디여 경기마감을 알리는 심판원의 호각소리가 울리자 온 건설장에는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고 전투원들의 얼굴에는 뜨거운것이 흘러내렸다.

우리 선수들의 승전소식이 안아온 격동과 환희는 그날 아침에도 가라앉을줄 몰랐다. 아침식사시간에도, 오전작업을 하면서도 전투원들은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의 이야기로 꽃을 피우며 그날 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본사기자 김 경 철

축하편지에 어린 뜨거운 마음

우리 선수들의 경기소식이 련일 전해지던 지난 9월 신의주마이싱공장에는 류다른 광경이 펼쳐졌다. 그 누가 조직사업을 한것은 아니였지만 공장종업원들의 출근시간이 여느때없이 빨라졌다.

공장의 종업원들은 이번에는 또 어느 종목의 경기에서 이겼을가 하는 생각에 아침 일찌기 달려나왔고 우리 선수들을 더 높은 생산성과로 맞이할 일념안고 일하느라 늦어서야 퇴근길에 나섰다.

어느날 마이싱직장의 직장장이 공장의 일군을 찾아가 전례없는 생산성과를 이룩해놓고 우리 선수들에게 축하편지를 보내고싶다는 심정을 터놓았다. 그의 제기는 일군은 물론 공장종업원들의 한결같은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그때부터 공장의 로동계급은 5년째 련이어 돌파해온 최고생산년도수준의 실적을 올해에는 10월말까지 앞당겨 완수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힘찬 전투를 벌리였다.

지난 9월말 마이싱의 질을 담보하는데서 나서는 생산공정을 새로 갖춘 이들은 지금 우리 선수들에게 하루빨리 축하편지를 보낼 불같은 마음안고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일생산계획을 120%로 넘쳐 수행하고있다.

본사기자 방 경 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체육인들이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우리 나라를 하루빨리 체육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기 위하여 마음을 벼리고 더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돌진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대동강구역 탑제3동 9인민반에 있는 허은별선수의 집주변에는 숱한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있었다. 그들속에는 선수의 어머니인 리순희녀성도 있었다.

우리가 축하의 인사를 하자 리순희녀성은 요즈음은 장한 딸을 둔 덕에 만나는 사람마다 축하를 해주어 송구스럽기 그지없다고 하면서 인민반사람들은 물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전화가 그칠새 없다고 미소를 머금고 이야기하였다.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입니까. 서로가 화목하게 사는 우리 사회주의제도가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생각이 정말 시시각각 가슴을 칩니다. 사람들의 인사를 받을 때마다 평범한 내 딸을 온 나라가 다 아는 체육선수로 키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드리였습니다.》

그의 말대로 허은별선수는 당의 품이 있어 자기의 재능을 활짝 꽃피울수 있었다.

남달리 영민할뿐아니라 축구에 대한 애착이 강렬한 한 소녀의 꿈을 헤아려 청소년체육학교에서 축구를 배우도록 해주었고 4.25체육단의 녀자축구선수로 불러준 당의 은정을 허은별선수와 그의 부모들은 언제나 잊을수가 없었다.

조국의 믿음, 부모형제들의 기대를 가슴에 안고 달려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우승한데 이어 2013년 동아시아컵녀자축구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최고득점자상을 받은 허은별선수를 대견하게 여겨 사랑의 한품에 안아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하기에 허은별선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떠나기 앞서 집에 들려 약속했다.

기어이 람홍색공화국기를 인천의 하늘가에 휘날리고 금메달을 안고 돌아오겠다고.

《첫 경기때부터 온 인민반이 잠들지 못했수다. 중국홍콩팀과의 경기에서 우리 은별이가 머리받기로 멋진 꼴을 넣은데 이어 준결승경기에서는 주심시간에 남조선팀꼴문에 결정적인 득점을 하는걸 보고 저마다 환성을 올리며 은별이의 아버지, 어머니를 불러내다 마당에서 춤판을 펼쳤수다. 이제 은별이가 돌아오면 내가 목마를 태우는걸 보시우.》

나이 70살이 가까와오는 김수영로인의 말에 한바탕 웃음이 터졌다.

허은별선수를 기다리는 인민반원들의 성의는 대단하였다.

구역과 동의 일군들이 자주 그의 집문을 두드리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은별이를 맞이하기 위해 온 인민반이 떨쳐나 동네를 더욱 깨끗하게 꾸려놓았다는 이야기에 우리의 가슴은 뭉클 젖어들었다.

은별이가 통쾌하게 꼴넣던 이야기를 하느라 동네녀성들은 밥지을 시간도 잊었다고 한다.

인민반원들은 마음을 합쳐 축하의 속보도 써놓았고 꽃다발과 꽃보라도 마련하였으며 음식감들도 성의껏 준비해놓았다.

《이제 은별이가 오면 큰상을 차리고 보란듯이 축하해주겠습니다.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은별이 어머니, 이젠 은별이가 그 집 딸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딸이지요. 안그래요?》

김경희녀성이 하는 말에 또다시 웃음꽃이 피여났다.

이것이 조국의 영예를 빛내인 체육인들을 기다린 우리 인민의 불같은 진정이다.

금메달을 안고온 승리자들이여, 조국의 장한 아들딸들이여!

축하를 받으시라, 조국과 인민은 그대들을 영원히 잊지 않으리라.

글 본사기자 김 명 훈
사진 본사기자 한 광 명

명절처럼 흥성이는 동네

축구선수 허은별동무가 사는 인민반을 찾아서

농근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의 경축공연

《사회주의협동벌에 울리는 로동당만세소리》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7돐과 조선로동당창건 69돐에 즈음한 농근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의 경축공연 《사회주의협동벌에 울리는 로동당만세소리》가 6일 숙천군 열두삼천농장에서 진행되였다.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 리명길, 평안남도당위원회 비서 차병윤, 관계부문 일군들, 군안의 농근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공연은 시와 합창 《10월입니다》로 시작되였다.

대화시 《그 품 떠나 못살아》, 남성독창 《내 심장의 목소리》 등의 종목들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주체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하시고 조선로동당을 필승불패의 강위력한 선군혁명의 향도자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영원불멸할 업적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무궁토록 빛나고 온 나라의 전야마다에서 로동당만세소리가 힘있게 울려퍼진다는 시대의 진리를 반영한 녀성독창과 합창 《조선로동당 만세》, 민요련곡 《대홍단삼천리》, 《철령아래 사과바다》 등의 종목들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녀성독창 《고백》은 인민이 누려갈 사회주의부귀영화를 위해 끝없는 헌신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와 그리움의 정으로 관람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녀성3중창 《땅과 농민》, 농악무 《사회주의협동벌에 울리는 로동당만세소리》 등의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가장 로숙하고 세련된 우리 당의 령도아래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변모되는 내 나라, 내 조국의 벅찬 현실을 훌륭히 형상하였다.

합창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로 끝난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언제나 경애하는 원수님만 굳게 믿고 따르며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뜻깊은 올해 농업생산을 빛나게 결속해나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제6차 전국대학생정보과학기술성과전시회 개막

제6차 전국대학생정보과학기술성과전시회가 개막되였다.

전시회에는 전국의 대학, 전문학교학생들이 부강조국건설을 떠메고나갈 불타는 애국의 열정과 세계를 앞서나갈 야심만만한 탐구정신을 지니고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이룩한 1300여건의 가치있는 발명 및 정보기술제품들이 출품되였다.

개막식이 6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되였다.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청년동맹일군들, 학생청년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개막사를 하였다.

그는 이번 전시회는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혁명인재육성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더 잘 받들어나갈 선군시대 청년대학생들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말하였다.

모든 학생청년들은 과학기술발전에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앞날의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을 떠메고나갈 강성조선의 믿음직한 역군들로 억세게 준비해나갈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

스웨리예국왕에게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까를 구스타프16세 스웨리예왕국 국왕에게 강용덕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2일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석상에서 대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까를 구스타프16세국왕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전하였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국왕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자신의 축원의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조선인민이 앞으로 보다 큰 성과를 거두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대표단이 떠나갔다

리동제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대표단이 6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격동과 흥분을 시에 담아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고 돌아오는 장한 아들딸들을 맞이하기 위해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시인들도 연도에 나섰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련이어 전해지는 승전소식에 접하고 흥분된 심정을 누를길 없어 한밤을 새워가며 시작품들을 창작한 이들이였던것이다.

우리와 만난 시문학분과위원회 위원장 문용철동무는 선수들을 축하하는 온 나라 인민의 마음과 마음이 환희의 꽃물결로 펼쳐졌다고 하면서 이것은 그대로 시의 련이 되고있다고 격동에 넘쳐 말하였다.

이날 선군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가슴후련하게 과시한 승리자들을 맞이하는 기쁨의 파도, 환희의 물결을 바라보며 읊은 시인 리창식동무의 즉흥시를 아래에 전한다.

하늘땅을 뒤흔든 승리를 안고
조국땅에 돌아오는 장한 아들딸들을
평양아 두팔벌려 얼싸안아주자
격정의 파도속에 그들을 휩싸안아
온 세상 보란듯이 다시한번 추켜올리자

10월의 하늘아래 휘몰아친
승리의 이 열풍을 안고
발전소들의 타빈들이여 더 힘차게 돌라
창조의 기념비들이여 더 높이 치솟으라
기적과 변으로 온 산이 울리게 하라

그렇다
승리는 오늘에도 우리의것
래일에도 우리의것
영원한 선군조선의것이다

본사기자 김 옥 별

최전연섬마을에 일심의 화원을 가꾸어가는 원예사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룡매도광산 지배인 리명철동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일군이건 행정경제일군이건 초급일군이건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는것을 기본열쇠로 틀어쥐고 여기에 응당한 힘을 넣어야 합니다.》

룡매도는 서해의 자그마한 섬이다.

바로 여기에 나라의 귀중한 광물을 생산해내는 광산이 있고 그 종업원들이 친형제마냥 서로 돕고 이끌며 다정하게 살아가는 광산마을이 있다.

또한 여기에 우리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있다.

광물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며 최전연의 섬마을을 혁신의 일터로, 일심의 화원으로 꾸려가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룡매도광산 지배인 리명철동무이다.

소박하고 성실하고, 그 마음 또한 불같이 뜨거워 광산마을사람들이 우리 지배인, 우리 섬마을의 가장이라고 부르는 리명철동무,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리명철동무의 사업은 일군들에게 현시기 당이 바라는 일군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명백한 대답을 주고있다.

한지붕아래 새 보금자리를 편 사람들

8년전 리명철동무는 룡매도광산 지배인으로 임명받았다.

당의 크나큰 믿음을 새길수록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조직되여 첫걸음을 뗀데 불과한 때에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겪은 광산이였다. 그후 얼마간의 전진은 있었으나 광산의 생산은 낮은 수준에 있었다. 광산의 생산토대도 빈약하였다. 새 설비들도 더 갖추고 기술개건도 하여야 하였다. 건설도 하고 광산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도 높여야 하였다.

그는 낮과 밤을 잊고 살았다. 종일 만능삽차를 운전하면서 광물을 퍼올렸고 밤이면 선광설비의 기술개건을 위해 기술서적들을 붙들고 씨름을 하였다. 한달치고 보름은 중앙과 도, 련관단위들에 나가 살았다.

그러던 몇해전 어느날 출장길에서 돌아오던 리명철동무는 바다를 마주하고 앉은 한사람을 보게 되였다. 품에 서너너덧살되는 총각애를 끼고 옴하고 앉은 그의 모습이 별스레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거기에 신경쓸 겨를이 없었다.

리명철동무가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된것은 며칠후 광산마을에 서였다. 얼마전에 사망한 광산종업원의 집대문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 눈에 띄였던것이다. 그 집울안에서 석쉼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형수, 그동안 신세가 많았는데 인츰 돌아가렵니다.》

이어 들리는 녀인의 크지 않은 목소리—《미안해요.》

먼저 말한 사람이나 그 말을 받는 사람이나 목소리에 활기가 없었다.

그냥 지나칠수가 없었다. 명철동무는 대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날에야 명철동무는 그 집안사정을 잘 알게 되였다.

그는 척추병으로 수술을 받은 사람이였다. 그래서 형네 집으로 왔다. 공기도 좋은 형네 집에서 얼마간 몸을 추세우고 다시 일터에 설 결심이였다. 그런데 형네 집에 와서 얼마 안있어 뜻하지 않게 형의 장례를 치르게 되였다.

그날 밤 명철동무는 자리에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았다. 광산과 인연이 없는 사람의 일이였다. 하지만 왜서인지 자꾸 그에게 신경이 갔다.

문득 자강도에 출장갔을 때 들었던 녀성지배인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났다. 공장일이 바쁜 속에서도 먼저 간 공장종업원의 자식들뿐아니라 수십명의 부모잃은 아이들을 맡아키우고있다는 이야기였다.

녀성지배인과 자신을 대비해 보았다.

그가 맡아키우는 고아들과 종업원으로 받아들여 돌봐주고있는 사람들의 대부분도 공장과 인연이 있은것은 아니였다. 그러나 그는 어려움을 겪고있는 조국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고 그 짐을 스스로 떠맡았던것이다.

군사복무의 나날 우리 분대장으로 불리우던 그의 가슴이 서서히 높뛰기 시작하였다.

며칠후 그를 찾아간 명철동무는 말하였다.

《이제 가면 돌봐줄 다른 형제가 있습니까?》

명철동무의 물음에 그 사람은 머리를 저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서로 도우며 살아봅시다.》

미처 말뜻을 다 깨닫지 못해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명철동무가 다시 말을 이었다.

《광산에 동무가 할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멍히 바라만 보고있던 그 사람의 눈가에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그에게 있어서 섬마을은 생소한 고장이였다. 사람들도 낯설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고충을 어느 누구한테 말 못했었다. 그런데…

눈굽을 닦는 그의 손을 잡으며 명철동무는 말하였다.

《형이 없으면 형과 함께 일하던 광산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산당조직도 있는거구요.》

그날에야 그들은 통성을 하였다. 그의 이름은 조승연이였다.

그러나 조승연동무는 다 알수 없었다. 지배인과 광산당일군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련관부문 일군들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를 알수 없었다.

한쪽으로는 조승연동무의 가족을 데려오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다른쪽으로는 그들이 보금자리를 펼 살림집건설이 시작되였다.

그동안에도 그들을 찾는 지배인과 그의 안해의 발걸음은 더욱 잦아졌다.

감자철에는 햇감자를 캐들고 왔고 명절날에는 명절음식을 들고 찾아왔다. 어느날 깊은 밤에는 강냉이자루를 메고와 토방에 놓아주고 갔고 또 어느날엔가는 가족모두를 자기 집에 불러 목욕을 하게 하고 새옷까지 입혀주었다.

새집들이를 하던 날 《조승연》이라는 패쪽이 달린 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던 조승연동무와 그의 안해는 우뚝 한자리에 멈춰섰다.

장판까지 한 알른알른한 방안에 차려진 가구들과 텔레비죤수상기, 물이 설설 끓는 소리가 들리는듯싶은 알른알른한 가마들과 부엌세간들…

조승연동무와 안해도, 그의 어머니와 어린 두 자식도 쉽게 문지방을 넘지 못하였다. 뜨겁게 눈물을 흘리는 그들의 모습은 종업원들에게 말해주었다.

남이 없는 이 땅이야말로 사회주의의 화원이라고.

그날 리명철동무는 자기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우리 광산처마아래 새 가정이 보금자리를 폈습니다. 제대병사 리명철은 맹세합니다. 인민군대의 중대장처럼 섬마을의 맏형, 맏누이가 되여 룡매도를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활짝 꽃피는 화원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때부터 리명철동무는 광산지배인이라는 직무와 함께 한가지 책임을 더 떠안았다. 섬마을의 맏형, 맏누이가 되는것이였다. 쉽지 않은 임무였다.

양지바른 언덕에 일떠선 조승연동무의 집주변에 해마다 새 집들이 건설되고 새 사람들이 보금자리를 폈다. 그때마다 광산마을의 식구가 늘어났다.

지난해 온 나라 인민이 전승 60돐을 뜻깊게 맞이한 그날 룡매도의 나지막한 둔덕에서는 청춘남녀의 결혼식이 진행되였다.

광산종업원들이 한가정마냥 둘러앉은 중심에 신랑, 신부가 나란히 앉았다.

행복에 겨워 웃고있는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뜨거웠다. 그중에서도 1직장 로동자 리창덕동무의 마음은 더했다. 옥이가 결혼을 한다고 할 때부터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말이 천번도 더 울려나왔다.

(고마운 사람, 고마운 사람!)

사실 옥이는 그가 키운 딸이였다. 그들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피덩이같은 옥이를 데려와 애지중지 키웠다. 옥이가 해달라는것이면 무엇이든 다 해주었다. 그런 눈먼사랑이 결국은 옥이를 못쓰게 만들었다. 중학교(당시)졸업을 앞두고 친부모에 대하여 알게 되면서 옥이는 더 삐뚤어져나갔다. 학교를 졸업하고는 자기 앞길은 자기가 개척한다면서 집을 나가버렸다.

옥이를 찾아다니지 않은 곳이 없었다. 설명하고 설복을 해서 집에 데려왔으나 하루이틀뿐이고 또 집을 나갔다. 그러기를 몇십번…

(제가 친부모가 아니라는데 우리가 애가 타 할건 뭐람.)

낳은 정보다도 키운 정이 더 크다지만 그들은 정녕코 단념해버리고말았다.

그런 옥이가 섬마을에 다시 돌아왔다는 소문이 들려왔을 때에도 그들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지배인이 옥이의 손을 끌고 그의 집을 찾아왔다. 좀 축간듯싶은 옥이의 모습에 가슴이 찌르르해왔다. 그랬으나 그들내외는 곧 머리를 저었다. 다시는 인정에 빠지지 말자고 마음을 다잡으며 그는 말하였다.

《우리 피줄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떠맡길 생각은 마십시오.》

지배인이 설복을 하려들수록 그들내외는 더 완강히 고집을 부렸다.

지배인은 그날 옥이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갔다. 얼마후에는 옥이가 광산종업원이 되였다. 그를 위해 광산정양소에 멋진 방이 꾸려졌다. 옥이가 달라져갔다. 원래 손끝이 여물고 이악했던 옥이는 곧 작업반의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직장의 혁신자로 되였고 년간생산총화에서 우승자가 되였다.

리창덕내외는 날마다 달라지는 옥이의 모습에 놀랐다.

어느날 옥이가 그들을 찾아왔다. 옥이는 울면서 말하였다.

아픈 매가 사랑인줄 몰랐던 지난날에 대하여, 키워준 부모님의 은혜를, 품어준 조국의 고마움을 심장으로 알게 아픈 매를 들어준 지배인에 대하여…

그날 옥이는 그들내외를 새 집으로 이끌었다. 여러칸의 살림방에 전실이며 세면장, 위생실까지 갖춘 새 집에는 이불장이며 텔레비죤수상기 등 생활용품들과 알른알른한 가마에 부엌세간들까지 알뜰히 갖추어져있었다.

영문을 몰라하는 그들에게 옥이는 얼굴을 붉히며 말하였다. 곧 결혼을 하게 된다고, 이 세간들은 지배인동지가 자기 집에서 들고나온것이라고.

리창덕동무는 지배인의 인정미에 다시한번 머리가 숙어졌다.

하지만 그들은 다 몰랐다. …

결혼식날 고아인 신랑의 술잔을 받으며 지배인은 말하였다.

《동무들은 누구보다 행복해야 하오. 왜냐하면 동무들은 여기 룡매도에 핀 한쌍의 꽃이기때문이지. 이 룡매도를 사랑과 행복, 화목이 넘치는 무릉도원으로 꾸리는것이 바로 우리의 숭고한 의무로 되거던.》

지배인의 이야기는 리창덕동무만이 아닌 종업원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가 광산종업원들의 앞장에서 찍어온 헌신의 자욱자욱이 되새겨졌다.

생산을 못하고서야 당앞에 무슨 면목이 서겠는가고 하면서 눈에 충혈이 지고 입이 터갈라지면서 대중의 앞장에서 광물증산을 위한 투쟁을 이끌어온 그였다. 그처럼 누구보다 많은 일감을 걷어안고 남보다 바쁜 속에서 섬마을에 또 하나의 광산마을을 일떠세운 지배인이였다.

그 나날 광산마을의 처마아래에 30여명의 식솔들이 새 보금자리를 폈고 10여명의 사람들이 광산종업원대렬에 들어섰다.

진정 광산의 지배인으로서, 광산마을의 가장으로서 그가 찍어온 걸음걸음은 광물증산으로 부강조국건설에 불타는 열정을 아낌없이 바친 창조의 발걸음인 동시에 서해의 외진 섬마을에 또 하나의 위력한 무기—일심의 화원을 가꾸어온 전사의 발걸음이였다.

붉은기대오의 기수

광산의 생산량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리명철동무가 지배인으로 임명되여 2년만에 광산은 년간 광물생산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였다. 그로부터 두해후에는 또다시 종전보다 배로 높아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그들은 더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종전의 5배가 되는 광물생산목표였다.

리명철동무는 선광장에 붙어살다싶이 하였다. 높아진 광물생산목표를 수행하자면 결정적으로 선광설비능력을 높여야 하였다.

어떻게 하면 선광능력을 높일수 있겠는가.

그의 머리속에는 오직 이 생각뿐이였다. 선광설비의 요소요소를 제몸의 구석구석처럼 파악하고있는 그는 길을 걸으면서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선광설비의 기계적원리와 성능을 놓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였다. 과학연구기관들과의 련계도 강화하였다. 그 나날에 그는 선광용테블사별기를 연구하여 국가발명권을 받은것을 비롯하여 진동사별채불교체에서 조립식방법의 적용, 비닐배관에 의한 자력선별기급강방법의 도입 등 여러건의 창의고안을 하여 선광설비의 능력을 종전의 몇십배로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쪽으로는 광산의 물질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건설도 판을 크게 벌렸다.

그러던 몇해전 어느날 큰 장마비에 산비탈이 깎이우면서 조구통이 떨어져내렸을 때였다. 즉시 조구통을 들어올리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기중기도 없었고 작업구간도 협소하였다. 모두가 말없이 전투위치를 차지하였다.

이날 리명철동무는 지배인으로서 자기의 어깨우에 지워져있는 임무가 광물증산만이 아님을 다시금 깨달았다.

조구통을 들어올리기 위한 전투는 끝났으나 그의 마음은 가볍지 않았다. 그날 전투에서 제일 위험한 구간을 차지하고 선것은 역시 어제날의 제대병사들이였던것이다. 광산의 개발과 함께 제대배낭을 푼 그때로부터 수십년간 자기 초소를 꿋꿋이 지켜온 사람들이였다. 그들이 광산의 첫 세대라면 그뒤를 이을 다음세대는 어디에 있었는가?

군대식으로 말을 한다면 안전지대에 있었다. 안전지대에서 어물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리명철동무의 생각은 깊어졌다.

부모잃은 그들을 한명두명 품에 안던 생각이 났다.

(눈먼사랑이 그들을 자기 한몸을 먼저 생각하는 인간들로 키웠는가. 품에 안는것만으로는 그들을 최전연섬마을의 대들보감들로 키워낼수 없다!)

명철동무의 마음을 알게 된 광산당일군도 그를 적극 지지해주었다.

명철동무는 정양소에서 생활하고있는 고아들속에 더 깊이 들어갔다. 그들과 한가마밥을 먹고 한이불을 덮고자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다계단으로 비약을 일으키고있는 조국의 현실에 대하여, 광산의 첫 세대인 어제날의 제대군인들의 위훈에 대하여, 우리 조국을 영원히 두동강내려는 원쑤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책동에 대하여…

명절날, 휴식날 그들모두를 집으로 데려다 푸짐한 식탁에 마주앉힐 때에도 그는 자신의 의무를 잊지 않았다.

고아들중에서도 백은진동무에게 명철동무는 많은 품을 넣었다.

그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여러 친척집들을 돌아다니던 때의 나쁜 습성을 좀처럼 버리기 힘들어하였다. 힘든 일에 몸을 내대기 싫어하고 비위에 맞지 않으면 자기가 맡은 초소도 버리고 달아났다. 그때마다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며 그를 데리고 오면 광산사람들은 명철동무에게 이렇게 말하군 하였다.

부모교양이 없이 자란 고아속내는 막 생겨먹었기때문에 교양이 안된다고.

그럴 때면 명철동무는 사람은 사랑을 주고 믿음을 준것만큼 따르고 보답하기마련이라고 조용히 말하였다.

명철동무는 그와 더 자주 자리를 같이하였다. 아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곁에 데리고 다녔다. 광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도 그에게 허심하게 털어놓았다. 한쪽으로는 그가 광산일에 재미를 붙이게 하기 위해 머리를 썼다. 함께 자고 일하면서 그가 눈썰미가 있고 기계의 속내에 밝다는것을 알게 된 리명철동무는 그에게 만능삽차의 운전기술을 배워주기 시작하였다.

어느날, 그날도 하루종일 백은진동무에게 운전기술을 배워주며 만능삽차를 운전한 리명철동무는 그와 함께 퇴근길에 올랐다.

하늘에 둥실 걸린 보름달이 고요한 섬마을의 밤정서를 더해주고있었다.

어느 집에선가 들려오는 칼도마소리, 웃음소리, 주인들을 반겨맞는 복슬강아지들의 킹킹대는 소리…

이런 밤이면 저도모르게 주눅이 드는 그를 명철동무가 끌며 말하였다.

《오늘은 우리 집으로 가자구.》

지배인의 집은 섬마을에서 원군집으로 통하였다.

그의 안해와 가시어머니가 집에서 길러 마련한 여러t의 돼지고기와 함께 수많은 원호물자를 해마다 조국보위초소의 군인들에게 보내주었던것이다.

부모의 얼굴마저 희미한 백은진동무에게 있어서 혈육의 정넘치는 가정세계는 생소하였다. 한번, 두번 원군집에 걸음을 하면서 그는 가정이란 결코 혈연적으로 이어진 사람들이 모여사는 곳만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이 나라를 떠받드는 큰 힘도 가정이라는 작은 울타리에서부터 다져지며 하나하나의 가정이 나라를 받드는 억센 주추돌이 될 때 내 조국이 더욱 강해진다는것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자기의 속생각을 터놓는 백은진동무에게 명철동무는 말하였다.

《옳은 생각이다. 그러면 가정은 또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것일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식들 이렇게 한사람한사람이 모여 한가정을 이루는것이다. 그런데 그 가족성원중에 누구 하나라도 삐뚤어진 길로 간다면 그 가정이 나라를 받드는 억센 주추돌이 될수 있을가. 그래서 이 나라 공민이라면 누구나 각자가 당과 나라앞에 지닌 의무가 있게 되는것이다. 나는 은진이도 당과 나라앞에 떳떳한 온 나라 대가정의 장한 아들이 되기를 바란다.》

그날 밤 백은진동무는 또 한뽐 성장하였다. 그가 점점 달라져갔다.

그럴수록 리명철동무는 그에게 더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그가 광산에서 함께 일하는 리옥동무를 사랑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을 때 명철동무는 그들을 데리고 바다를 가로질러 뻗어가는 간석지제방으로 나갔다.

그날 리명철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세상에 사랑보다 더 소중한게 어디 있겠소. 하지만 그 사랑도 조국이 있고서야 있는게 아니겠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소. 나는 동무들이 광산의 래일을 떠메고나가는 기둥감이 되길 바라오. 그렇게 하는것이 소중한 사랑도 지키는것이거던.》

소중한 사랑을 귀중히 여기지 않을 청춘이 어디 있으랴.

그들은 광산의 혁신자로 되였다.

이들만이 아니였다. 김영만동무의 딸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혁신자무대에 올랐고 광산의 래일을 떠메고나갈 새 세대들이 초급일군대렬에 들어섰다.

광산은 날마다 흥하는 기업소로, 더욱더 흥할 래일을 위하여 모두가 한마음한뜻으로 뭉쳐나가는 전투력있는 집단으로 자라났다.

리명철동무는 언제 한번 붉은기를 높이 들고 요란한 언사로 멋들어진 선동을 한적은 없었다. 더우기 그는 광산의 지배인이지 당선전일군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리명철동무야말로 붉은기대오의 기수, 우리 당이 바라는 참된 일군이라고 말한다. 그야말로 자식에게 오만자루의 품을 들이는 어머니처럼 종업원들의 마음의 구석구석까지 헤아리고 가꾸고가꾸어서 붉은기대오의 선구자들로 내세운 그의 소행을 두고 그렇게 말할수 있는것이다.

온 나라 방방곡곡의 가정과 마을, 일터마다에 뜻과 정으로 뭉친 일심의 대화폭을 더 아름답게 펼쳐놓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서해의 자그마한 룡매도에 알알이 씨를 뿌리고 정성을 가꾸어 송이송이 충정의 꽃을 활짝 피운 리명철동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얼마전 그의 사업정형을 료해하시고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 *

우리가 광산을 찾은것은 이른아침이였다.

우리와 함께 광산마을을 거닐던 리명철동무가 《열일곱》하면서 걸음을 멈추더니 허리를 굽히고 발앞의 코스모스주변에 돋아난 잡풀을 뽑았다. 그리고는 주변의 조약돌을 한알한알 다시 정히 놓는것이였다.

영문을 몰라하는 우리에게 그는 이렇게 한그루한그루 세여가며 출근길에 동구길의 코스모스를 가꾸는것이 일과처럼 되였다고 말하는것이였다.

우리는 리명철동무에게 물었다.

왜서 동구길의 코스모스에 그렇게도 정이 깊은가고.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길가의 꽃나무 한그루에도 정을 쏟을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가정을 사랑하고 집단을 사랑할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조국은요.》

소박하고도 진실한 그의 이야기를 놓고 우리는 생각하였다.

맡고있는 임무가 무엇이든 일군이라면 누구나 사람의 마음을 가꾸는 원예사, 선군조선의 위대한 힘인 일심의 화원을 가꾸는 원예사가 되라.

그러면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

본사기자 림현숙

조국의 산들을 더욱 푸르게 할 애국의 일념안고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많이 생산하고있다. —연탄군산림경영소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군소재지를 사회주의선경으로

초산군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도와 시, 군소재지들도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위력을 과시할수 있도록 잘 꾸려야 합니다.》

초산군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군소재지를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의 일군들은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원칙에서 군소재지를 더 환하게 꾸리는 사업을 통이 크게 설계하고 적극 내밀고있다.

최근에만도 이 사업에서 많은 성과가 이룩되였다.

초산천과 장토천기슭을 따라 10여동의 다층살림집이 일떠서고 읍지구에 120여세대의 단층문화주택들이 새로 일떠서 소재지의 면모가 일신되였다. 그리고 읍지구의 군급기관, 기업소, 공장들과 살림집구획들에 조선기와를 씌운 울타리가 보기좋게 쌓아졌다. 군의 화학공장에서 생산한 여러가지 색갈의 질좋은 외장재가 건물들에 칠해져 소재지가 더욱 환해졌다.

또한 봉사건물들의 천수백㎡나 되는 외벽들에 여러가지 색갈의 타일이 조화롭게 붙여져 거리의 모습이 한결 이채로와졌다. 여러가지 유희시설을 갖춘 아동공원과 로라스케트장을 비롯한 어린이들의 놀이터들이 특색있게 꾸려졌으며 합각지붕을 씌운 은덕원, 군려관이 훌륭히 꾸려지고 독특한 건축형식을 갖춘 과학기술문화지식보급기지가 새로 일떠섰다.

군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뜨거운 조국애, 열렬한 향토애를 지니고 꾸리기사업에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이들은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군소재지의 도로옆과 살림집구획들의 공지 그리고 기관, 기업소, 공장구내를 비롯한 4만㎡의 면적에 잔디를 심었으며 수종이 좋은 수천그루의 나무들도 심었다. 그리고 곳곳에 화단들도 새로 설치하여 군소재지의 면모를 더욱 환하게 해놓았다.

군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소재지의 천수백m의 우수망공사를 와닥닥 끝내고 하천옹벽쌓기공사도 성과적으로 해제꼈다.

군에서는 협동농장들의 과수작업반 묘목분조들에서 생산한 과일묘목들을 읍지구의 주민세대들에 공급해주어 군소재지의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를 실현하는데서 성과를 거두었으며 소재지의 불장식도 특색있게 해놓았다.

군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불타는 애국열의, 헌신적투쟁에 의해 소재지의 모습은 사회주의선경으로 나날이 변모되고있다.

특파기자 동세웅

기특한 새 세대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존대하는것은 총대로 승리하여온 우리 혁명의 전통이며 우리 사회의 고상한 정신도덕적기풍입니다.》

얼마전 우리와 만난 중구역 보통문동에서 사는 전쟁로병들은 《기특한 새 세대들을 자랑해주시오.》라고 하며 자기들의 손녀들에 대한 자랑이야기를 펼쳐놓았다. 80고령의 전쟁로병들이 입을 모아 자랑하는 손녀들은 락원지도국 아래단위의 봉사자들이였다.

로병동지들도 우리 종업원

두해전 7월 어느날 전쟁로병들의 집으로 양명애, 김원희동무들을 비롯한 이곳 봉사자들이 찾아왔다. 그날 그들은 전승절을 맞는 로병동지들을 축하한다고 깍듯이 인사하며 성의껏 마련한 물자들을 안겨주고 전쟁로병들과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때부터 그들은 명절날, 생일은 물론 마치 할아버지네 집을 찾듯이 스스럼없이 전쟁로병들의 집을 수시로 찾아 건강과 살림살이형편을 알아보고 극진히 위해주었다.

전쟁로병들이 너무 이러지 말라고 할 때면 그들은 《로병동지들도 우리 종업원과 같습니다.》하고 외우군 했다.

생일일람표이야기

보통문동의 전쟁로병들을 알게 된 그때 이곳 일군들과 봉사자들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더 잘 위해줄것인가를 진지하게 의논하였다. 건군절, 전승절마다 전쟁로병들을 어김없이 찾아 축하해주며 나이많은 그들의 건강에 특별한 주의를 돌리는것과 함께 식생활문제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서로의 좋은 의견이 합쳐지던 그 자리에서 최옥주동무는 생일일람표를 만들것을 제기하였다.

전쟁로병들의 생일과 그들의 기호에 맞는 음식차림표와 함께 락동강도하전투와 1211고지방위전투 등 원쑤들과의 격렬한 싸움에서 세운 전쟁로병들의 공로를 한눈에 알아볼수 있는 생일일람표, 거기에는 전승세대에 대한 경의를 안고 새 세대로서의 도리를 다하려는 봉사자들의 갸륵한 마음이 깃들어있었다.

6명을 위한 예술소품공연

지난해 12월초 어느날 이곳 봉사자들이 전쟁로병 리룡천로인의 집을 찾아왔다.

반겨맞는 로인내외를 그들은 《오늘이 로병할아버지의 생일이 아닙니까?》하며 생일상으로 이끌었다. 갖가지 음식들로 가득찬 생일상을 마주한 리룡천전쟁로병내외는 물론 그 자리를 같이한 다른 두 로병내외도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6명의 전쟁로병부부들을 위해 20명의 봉사자들이 모두 떨쳐나 전시가요를 비롯한 심금을 울리는 다채로운 예술소품공연무대를 펼쳐놓았던것이다.

6명을 위한 20명 봉사자들의 예술소품공연은 해마다 여섯번씩 어김없이 진행된다고 전쟁로병들은 자랑했다.

한밤중의 문두드리는 소리

무더위가 계속되던 지난 여름 어느날 밤이였다.

《똑똑똑》하는 문두드리는 소리에 집문을 열었던 배응식전쟁로병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낮에 들렸던 장옥미, 채향미, 김성희동무들이 또 찾아왔던것이다.

아까 보니 얼굴이 부어있는것 같아서 혈압을 낮추는데 좋은 약재를 구해가지고왔다는 그들의 말에 로병은 목이 꽉 메여오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조국을 위하여 피흘리며 청춘을 바친 전쟁로병동지들이 건강해야 우리 새 세대들이 정바르게 자랄수 있다고 보청기와 혈압계도 마련해주며 로병들의 건강관리에 세심히 마음쓰는 이곳 봉사자들이였던것이다.

《손녀라고 불러주십시오》

지난해 7월 전승 60돐경축행사에 참가하는 리룡천, 안근식, 배응식전쟁로병들을 이곳 봉사자들이 찾아왔다. 지성다해 준비한 기념품들을 안겨주며 이건 어느때 쓰고 이것은 어떻게 써야 좋을것이라고 정을 담아 이야기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전쟁로병들은 동무들은 꼭 우리 손녀들같애 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에게 최옥주동무와 봉사자들은 그러면 더 바랄것이 없다고, 앞으로 우리를 손녀라고 불러주십시오라고 하며 진정을 터놓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대로 전쟁로병동지들을 존대하며 위해주는것은 우리 새 세대 청년들의 마땅한 도리이고 의무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언제나 가슴속깊이 간직한 이들이기에 전쟁로병들은 그렇게도 자랑하고싶어하는것이였다.

본사기자 김치곤

독자의 편지

심장으로 웨칩니다

노래 《내 심장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의 량볼로는 저절로 눈물이 흐릅니다.

가슴에 품은 모든 생각을 어머니께 아뢴다는 구절이 신통히 우리 자매의 심정을 대변한것 같아서입니다.

사실 우리 자매는 일찌기 부모를 잃어 의지가지할데가 없다고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고마운 사람들을 만나 새 삶을 펼치였습니다.

10여년전 저의 약혼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였습니다.

당시 내가 다니던 단위의 당일군은 자기가 바로 새색시의 아버지라고 하며 시부모님들앞에 소개하는것이였습니다. 결혼식준비도 자기 집에서 해주었습니다. 어머니당일군의 진정앞에 저는 그때 눈물을 쏟고야말았습니다.

사회주의조국에 적은 힘이나마 보탬을 주려고 저는 구두수리공이 되였습니다. 한가정의 주부로 된 동생에게도 맡은 일을 성실히 하라고 거듭 당부하군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한순간의 실수로 잘못을 저지를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처음엔 눈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나에겐 그런 동생이 더는 없다고까지 하였겠습니까.

하지만 조직과 집단은 못난 자식을 탓할 대신 동생이 바른 길에 들어서도록 이끌어주었습니다. 서명옥동무를 비롯한 동생이 사는 동의 일군들과 인민보안원까지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의 잘못이라고, 책임지고 잘 돌봐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숨겼던 잘못도 서슴던 허물도 그대로 터놓는다는 노래의 구절에도 있듯이 저의 동생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개진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세상에 이런 고마운 사람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훌륭한 일군들을 키워낸 어머니 우리 당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장으로 웨칩니다. 위대한 어머니당의 품에 영원히 안기렵니다라고.

서성구역 와산동 22인민반 지춘녀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애국애족적방안

민족분렬의 장기화로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정치체제가 존재하고있는 특수한 현실적조건에서 민족공동의 통일방도를 확정하고 그것을 실현해나가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 복잡하고도 어려운 문제의 해결은 민족성원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통일방안을 전제로 한다.

조국통일운동의 탁월한 스승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34년전인 주체69(1980)년 10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시여 자주적평화통일실현의 가장 정확한 방향과 방도를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민족의 절박한 요구와 나라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조국통일을 빨리 실현할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는것이다.》

련방제방식은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유일한 방도이다.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룩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숙망이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현재 서로 다른 제도가 존재하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제도의 단일화를 전제로 하는 통일은 그 실현방법이 어떠하든지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을 먹는것으로 되는것만큼 어느 측에도 접수될수 없다. 접수될수 없는것을 강요하려 한다면 불피코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나아가서는 반드시 전쟁을 불러오게 되여있다. 동족이 근 70년간 갈라져 살아온것만도 가슴터지는 일인데 자기의 제도만을 고집하여 전쟁의 화를 불러들인다면 그처럼 수치스러운 자멸행위는 없을것이다.

련방제방식은 통일적인 련방국가안에 서로 다른 두개의 제도를 그대로 두는 방식이기때문에 통일과정에 충돌할 리유가 없고 따라서 전쟁위험이 없는 가장 평화적인 통일방식이다.

우리 민족에게는 조국통일을 위한 가장 합리적방도인 련방제통일방안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한 나라안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할수 있다는데 기초한 독창적인 방안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는 북과 남 량측의 리해관계가 공정하게 고려되여있다. 련방제방식으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겨레의 지향과 요구는 날로 높아가고있다. 누가 누구를 먹거나 먹히우지 않는 공존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가장 빨리 실현할수 있게 한다는데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의 현실성과 공명정대성, 합리성이 있다.

련방제방식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애국애족의 방안이다.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은 본질에 있어서 외세에 의하여 북과 남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혈연적뉴대를 강화하여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위업이다.

우리 민족은 비록 외세에 의하여 서로 다른 제도에서 살아오고있지만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하나의 혈통을 이어받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한강토에서 살아온 하나의 민족이다. 그 어떤 힘도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형성발전된 단일한 조선민족을 갈라놓을수 없으며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할수 없다. 이러한 민족적공통성을 기초로 하여 북과 남은 얼마든지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고 하나의 민족, 하나의 통일국가안에서 공존할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보지 않고 외세공조에 의한 체제통일을 주장하는것은 동족대결과 충돌을 격화시키자는것이며 그것은 력사와 후대들앞에 용서받을수 없는 매국반역적죄악으로 된다.

련방제를 실시하는것은 민족공동의 리익에 완전히 부합되는것이다.

련방제를 실시하면 북과 남사이의 호상리해를 더욱 촉진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강화할수 있으며 외세에 의한 나라의 분렬을 끝장낼수 있다.

련방제를 실시하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면 조선반도에서의 긴장상태를 가시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된다.

결국 련방제는 조선민족이 둘로 영원히 갈라지는것을 막고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것이며 조선에 대한 외세의 침략과 간섭을 막고 우리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보장하기 위한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북과 남의 모든 계급, 계층들과 각당, 각파가 다같이 사상정치적, 지역적, 계급적리익을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서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대립과 의견상이를 극복하면서 민족공동의 번영과 조국통일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과 지혜, 정력을 다 바칠수 있게 하는 애국애족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다.

북과 남은 이미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을 통하여 북측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것은 북과 남이 민족공동의 통일방도를 확정하는 길에서 이룩한 커다란 성과이다.

6.15공동선언의 채택이후 반세기이상 얼어붙었던 분렬의 장벽에 파렬구가 열리고 북남관계가 불신과 대결의 관계로부터 화해와 단합의 관계로 전환되여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이 활성화되였던 경이적인 현실은 비록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는 달라도 민족공동의 리익과 목적을 위하여 투쟁한다면 그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할수 있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주었다. 그것은 전적으로 민족공동의 리익을 무엇보다 중시하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투쟁해온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노력의 결과이다.

북남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어온 최근년간의 비극적사태를 통하여 남조선 각계층을 비롯한 온 겨레는 련방제방안의 정당성과 애국애족적성격을 더욱 똑똑히 새기고있으며 민족이 살길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따라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이룩하는데 있다는것을 확신하고있다.

련방제통일방안의 실현으로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민족의 의지는 그 무엇으로도 꺾을수 없다.

우리 민족이 세기를 이어 세계의 유일한 분렬민족으로 남아있는것은 민족성원들의 의사도 아니며 옳바른 조국통일방도가 없기때문임은 더우기 아니다.

이제 더이상 남의 식 통일방안을 모방할것도, 그 무슨 다른것을 들고나올 필요도 없다.

련방제방식이야말로 나라의 통일을 온 민족의 의사와 요구, 리익에 맞게 공명정대하게 실현할수 있게 하는 조국통일방안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뛰여넘어 련방제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

라 설 하

민족성을 지켜주신 절세의 애국자

남조선인민들 높이 칭송

남조선인민들은 우리 민족성을 지켜주고 빛내여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절세의 애국자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대구의 한 지식인은 민족의 문화와 전통이 활짝 꽃펴나는 우리 공화국의 현실에 동경을 표시하면서 동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북에는 우리 민족의 원시조인 단군릉, 고구려의 창업주인 동명왕릉이 훌륭히 개건되여있고 선조들의 유적유물이 잘 보존되여있다. 건축물만 보아도 민족특유의 양식, 민족의 얼이 그대로 살아있다. 민족풍속이 국가적시책으로 적극 장려되고 문학예술전반이 민족전통에 토대하여 현대적미감에 맞게 발전하고있다.

광주의 한 인사는 평양을 방문한 소감에 대해 이렇게 토로하였다.

나는 평양에서 민족의 혈맥이 높뛰는 민족성의 대화원을 목격하였다.

남에서는 서양풍, 왜풍에 휘말려 단일민족의 혈통이 흐려지고 민족문화와 전통이 흔적없이 사라져가지만 이북은 전혀 다르다.

이북에는 분명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과 문화가 있고 고유의 멋과 향기가 있다.

한 력사학교수는 이북은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민족의 현대사를 영광으로 장식하였을뿐아니라 외곡되였던 민족사도 바로잡아 본 궤도에 올려세웠다, 북의 민족성보존노력과 진지한 자세에 놀라지 않을수 없다고 피력하였다.

문학가 장진호는 북의 흥겨운 민요들과 민속무용들은 모두가 우아하고 품위있으면서도 민족의 정서를 불러일으키고있다고 하면서 북의 예술은 주체성, 민족성이 력력하며 민족자주의 얼이 깃들어있는 참예술이라고 격정을 터쳤다.

서울의 한 언론인은 오늘 이북에 민족의 얼이 살아있는 문화유산들이 소중히 보존되여있는것은 전적으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라고 언명하였다.

문화재보존운동협회의 회원은 남들이 《세계화》의 풍랑에 휘말려들어 사회주의를 줴버리고 몇푼의 돈에 민족의 존엄마저 팔고있을 때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탁월한 선군령도로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강권책동에도 끄떡없이 민족의 얼과 주체성을 지켜주시였다, 절세의 애국자이신 장군님께서 계셨기에 오늘의 참다운 민족의 존엄이 있으며 창창한 미래가 기약될수 있었다고 격찬하였다.

부산의 한 대학교 교수는 동료들과 함께 노래 《내 나라 제일로 좋아》를 들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들으면 들을수록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느끼게 하는 노래이다.

이 노래는 외세의 지배와 문화침략으로 민족의 넋마저 사라져가고있는 오늘 이남의 민중에게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제 정신으로 살아나가도록 각성을 높여주고있다.

자기의것을 무시하고 남의것을 무턱대고 숭상하며 본따는 이남정치풍토를 생각할 때 아득히 돋보이고 부러운 노래이다.

김정일장군님의 령도가 있었기에 이북사회에는 내 민족이 제일, 우리 식이 제일이라는 사고방식이 깊이 뿌리내리고 민족전통이 잘 보존계승될수 있었다.

민족미술연구회 회원은 북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고유하고 우수한 전통이 살아숨쉬는 곳이라고 찬탄하였다.

남조선의 한 자유기고가는 북에 펼쳐진 경이적인 현실에서 진정한 조국의 참의미를 찾는다, 세인이 우러러보는 주체의 조국으로, 자주의 성새로 지구의 중심에 우뚝 서있는 이북이야말로 진정한 내 조국, 우리 민족이 안겨살 행복의 요람, 민족의 운명을 영원히 맡기고 빛내여갈 위대한 품이라고 주장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당창건 69돐과 10.4선언발표 7돐에 즈음하여

재우즈베끼스딴동포들 행사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69돐과 10.4선언발표 7돐에 즈음하여 재우즈베끼스딴동포들이 1일 행사를 진행하였다.

주영일 우즈베끼스딴 조선문화전통《로인》협회 회장과 동포예술단 단장들, 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행사장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2007년 10월 평양에서 남조선 로무현《대통령》과 상봉하시는 사진문헌이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인민군부대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을 현지지도하시는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10.4선언 전문과 조국의 발전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주영일회장이 발언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1945년 10월 10일 창건하신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령도에 의하여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명실공히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당으로,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로숙하고 세련된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고 언명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언제나 인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책을 세우고 그 어떤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인민의 리상을 현실로 꽃피우는 가장 권위있는 혁명적당으로 빛을 뿌리고있다고 격찬하였다. 인민들은 령도자와 당을 믿고 령도자는 인민을 위하는 일심단결의 모습이 오늘 우리 조국의 현실이라고 주장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조국을 더욱 부강한 나라로 건설하시기 위하여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계신다고 칭송하였다.

10.4선언은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지름길을 밝힌 강령적지침이라고 강조하였다.

북과 남이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성실히 리행하면 북남관계와 통일문제에서 극복 못할 난관이 없다고 하면서 그는 동포들 모두가 조국인민들의 힘찬 걸음에 발맞추어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높이 조국의 통일과 강성국가건설에 이바지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이어 예술공연이 있었다.

몽골의 초원

미국주도의 《반테로련합》형성의 부당성 폭로

이란 최고민족안전리사회 서기장이 9월 3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주도의 《반테로련합》형성의 부당성을 까밝혔다.

그는 미국이 테로분자들을 소멸한다는 구실밑에 그 무슨 련합을 형성하려고 시도하는것은 국제적인 합법성을 상실한 하나의 광대극에 불과하며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려는 불순한 목적에서 출발한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이란정부는 이러한 《반테로련합》형성을 반대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투쟁의 기치

10.4선언은 우리 겨레에게 통일되고 번영하는 조국을 안겨주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애국헌신과 로고의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는것은 북남관계를 전진시키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근본전제입니다.》

10.4선언은 6.15공동선언과 더불어 새 세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변함없이 들고나가야 할 기치이다.

10.4선언에는 우리민족끼리정신에 따라 북남관계를 호상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협력과 교류를 다방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키며 조선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과 번영을 앞당겨오기 위한 방도들이 명확히 밝혀져있다.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마련됨으로써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설계도와 실천방도들을 가지고 자주통일을 향해 더욱 활력있게 전진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존중과 리행에 북남관계와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밝은 전도가 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명실공히 민족자주의 선언이며 민족단합의 선언이다.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은 어디까지나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해나가야 한다. 외세에 의하여 분렬을 강요당하고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것은 절대로 양보할수 없는 조국통일운동의 근본원칙으로 된다.

근 70년에 달하는 민족분렬의 비극사는 외세에 의존해서는 언제 가도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실현할수 없다는것을 깨우쳐주고있다.

나라의 통일은 어디까지나 우리민족끼리리념에 따라 민족의 의사와 리익을 앞세우고 여기에 모든것을 지향시켜야 실현될수 있다.

10.4선언이 가리키는대로만 하면 우리 민족은 능히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실현할수 있다. 북남선언들이 밝힌 우리민족끼리정신에 따라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해나가면 사상과 제도, 리념의 차이가 아무리 커도 문제될것이 없다. 북남관계의 원칙도, 신뢰의 출발점도 겨레의 지향과 요구가 합축되여있는 북남선언들을 존중하고 철저히 리행하는데 있다.

우리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하여 시종일관하게 노력하였다. 올해에만도 우리는 겨레의 지향과 공동의 리익을 앞에 놓고 아량있고 대범한 조치들을 주동적으로 취하면서 북남관계의 파국을 해소하고 대화와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였다. 이와는 배치되게 민족의 운명문제인 북남관계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반공화국공조를 구걸하는것은 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롱락물로 내맡기는 수치스러운 매국반역행위이다.

조국통일운동의 성과여부는 우리 민족이 어떻게 단결하여 투쟁하는가에 달려있다. 북남선언들의 요구대로 온 겨레가 사상과 리념의 차이를 뛰여넘어 하나로 굳게 단합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6.15통일시대는 실천으로 확증해주었다. 10.4선언 그자체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도평화,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밝힌 조국통일의 위대한 설계도이다. 온 민족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면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시대적흐름에 역행하는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10.4선언의 채택이후 흘러온 지난 7년간은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을 짓부시며 북남선언들을 고수리행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의 련속이였다.

북남사이에 군사적긴장을 고조시키는 그 어떤 움직임도 북남선언들의 정신에 배치되는것이라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존중과 리행을 떠나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북남관계의 발전도 기대할수 없다는것이 지난 7년간을 돌이켜보며 우리 겨레가 다시금 찾게 되는 교훈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쳐물리치며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개선의 출로를 열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자는것이 북남선언들의 기본정신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여 마련해주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우리 민족에게 남기신 고귀한 유산이며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자주적운명개척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의 앞길은 순탄하지 않지만 그 어떤 힘으로도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에로 향한 거세찬 민족사적흐름을 가로막을수 없다.

본사기자 허 영 민

이 것 이 바 로 자 본 주 의 의 진 짜 모 습 이 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들이 사회주의를 악랄하게 헐뜯으며 중 념불외우듯 하는 소리가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가 《진정한 인권을 보장해주는 자유롭고 민주주의적인 사회, 만민평등의 사회》이며 《물질적번영》을 가져오는 《복지사회》라는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회주의에 비한 자본주의의 《우월성》과 그 《영원성》에 대해 떠들어대고있다. 하지만 이것은 자본주의의 반동성과 부패성을 가리우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 그 무엇으로써도 치명적이며 고질적인 병집을 안고있는 자본주의의 진면모를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자본주의나라 정객들과 그 대변자들이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선전하는데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것은 《물질적번영》과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이다. 이것은 극도로 기형화, 반동화된 자본주의사회의 물질문화생활을 정당화해보려는 변명에 불과하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물질적번영》은 결코 일반대중을 위한것이 아니다. 하다면 도대체 그것은 누구를 위한것인가. 여기에 명백한 대답을 주는 실례가 있다.

2011년 미국의 뉴욕에서 대규모적인 시위가 일어났다. 그들이 내든 구호들중에는 《자본주의를 반대한다》와 함께 《우리는 99%이다》도 있다. 이것은 1%밖에 안되는 극소수 부유층이 99%에 달하는 사람들이 창조한 물질적부를 차지하고 탕진하고있는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반항으로부터 나온것이다. 구호는 미국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것이다. 1%가 물질적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으니 99%의 국민들의 생활이 어떠하겠는가 하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몇해전 미국인구조사국은 나라의 빈궁실태가 최악의 상태에 처해있다는 자료를 발표하였다. 그도그럴것이 미국에서는 엄청난 집값으로 하여 제 집을 쓰고살 생각조차 못하고 방랑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수십만명에 달하는데 《집없는 사람들의 도시》로 알려진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안젤스시에서만도 매일 5만명이상이 한지에서 새날을 맞고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초보적인 먹고 입고 쓰고살 권리는 미국에서 이렇게 유명무실한것으로 되고있다.

미국의 정객들이 자랑하는것들중에는 《의료보험제도》라는것이 있다. 이것은 순수 극소수 돈많은자들만을 위한것으로서 가난한 사람들은 의료보험에 들지 못해 병이 나도 치료를 받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있다. 이러한 현실을 놓고 미국의 경제전문가 매슈 루슬링은 자기 나라에 빈부가 존재한다는것은 새로운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부익부, 빈익빈현상은 더욱 극심해졌다고 개탄하였다.

극소수의 부유층이 대부분의 물질적부를 차지하고 풍청거리고있는 반면에 절대다수 근로대중은 인간이하의 생활을 하고있는 사회가 바로 미국이다.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의 형편도 마찬가지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행복한 물질문화생활》도 한갖 허위에 불과한것이다. 이 말은 부유층에게나 어울리는것이지 가난한 사람들은 상상조차 못한다. 자본주의발전은 시장의 확대를 전제로 한다. 자본가들은 리윤획득과 치부의 원천이며 공간인 시장확대를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의 자체모순으로 하여 상품생산에 맞게 지불능력있는 수요가 따라서지 못하고있다. 이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필연적현상이다.

자본가들은 리윤획득을 위해 비인간적인 수요를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물질생활을 기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있다. 이것은 부유층들의 사치와 방탕을 더욱 조장시키고있다.

미국의 억만장자들속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재부를 탕진할데가 없던 나머지 애완용개들에게 1만 5 000US$어치의 금강석목걸이를 걸어주고 수십만US$어치의 생일대연회를 차려주는것과 같은 믿기 어려운 놀음들이 극히 자연스럽게 벌어지고있다. 그것도 모자라 끔찍한 뱀들을 애완용으로 기르는데서 쾌락을 찾는 변태적인 풍까지 만연되고있다. 이런 비인간적수요를 일확천금의 기회로 본 돈벌레들이 세계각지에서 뱀을 경쟁적으로 끌어들이고있는탓에 미국에서는 《뱀산업》이라는 소름끼치는 말이 류행되고 250만마리이상의 각종 뱀들이 이 나라 억만장자들의 궁궐같은 집들에서 호사를 누리고있다.

한쪽에서는 빈궁자들이 살길을 찾아 헤매고 한해에 평균 10%이상씩 뛰여오르는 살림집값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 집마련의 꿈을 버리고 한지에서 지내고있을 때 한줌도 안되는 부유층들은 이렇게 놀아대고있다. 빈곤자들은 살아갈 길이 막막해 타락과 절망에 빠져 자살의 길을 택하는가 하면 마약과 알콜을 마구 람용하고 살인강탈을 하는 등 범죄의 길에 뛰여들고있다.

자본가들은 불붙는데 키질하는 식으로 근로대중을 저들에게 순종하는 돈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 반동적인 사상문화와 썩어빠진 부르죠아생활양식을 대대적으로 류포시키고있다. 미국에서만도 현재 방영되고있는 텔레비죤오락편집물가운데서 80%가 류혈적인 살인내용을 담고있으며 매일 시청률이 높은 시간에 방영되는 편집물가운데서 폭력화면은 시간당 평균 8~12번이나 펼쳐지고있다. 그것을 그대로 본딴 강도단들이 부쩍 늘어나고 흉악범죄사건들이 끊기지 않고있다. 마약람용자수가 계속 늘어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마약람용자수는 전국적으로 2 260만명에 달하고있는데 헤로인소비량은 최근년간에 80%나 늘어났다고 한다.

각종 범죄의 증대는 수감자증대를 낳기마련이다. 미국에 범죄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것은 수감자수가 220만명으로 세계의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있는 사실이 보여주고있다. 미국에서는 나날이 불어나는 죄수들에 비해 감옥들이 현저히 모자라다나니 개인들이 저마끔 감금시설을 차려놓고 돈벌이를 하고있다. 문제는 수감자들이 감옥밥을 정상적으로 먹는것을 호화생활로 간주하고있는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만 볼수 있는 웃지 못할 괴이한 현상이다.

자본가들의 사치와 방탕,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마비시키는 각종 수단들이 판을 치고 마약중독자와 알콜중독자들, 변태적욕망을 추구하는 타락분자들이 날을 따라 급격히 늘어나고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불구자로 되여가고있는것, 이것이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의 진면모이다.

《진정한 인권을 보장해주는 자유롭고 민주주의적인 사회》라고 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절대다수 근로대중의 정치적권리가 돈과 권력에 의해 여지없이 롱락당하고있다.

자본주의나라 정객들과 그 대변자들이 《민주주의》라고 표방하고있는 선거경쟁 하나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선거는 돈뿌리기경쟁이다.

자본주의나라 선거법들에도 누구나 선거에 참가할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이것은 기만적인것에 불과하다. 나이와 거주지, 직업 등 제한조건을 내걸고 많은 사람들을 선거에서 제한하고있다. 선거는 돈많은자들만을 위한것이다. 선거때마다 누가 돈을 더 많이 뿌리는가에 따라 결과가 결정된다.

미국에서 2010년 11월에 있은 중간선거가 그것을 보여주는 단적실례이다. 그때 선거는 39억 800만US$가 탕진된것으로 하여 미국력사상 비용이 가장 많이 든 중간선거로 기록되였다. 국회 상, 하원 의원후보들은 선거가 시작되기 전인 10월에 벌써 15억US$이상의 자금을 걷어모음으로써 중간선거모금기록을 깨뜨렸다. 현 집권자도 돈과 돈의 대결에서 《승리》하여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았다. 돈이 모든것을 결정하는 자본주의선거제도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관람자에 불과하며 그들의 선거권이라는것이 있으나마나한것으로 된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자본주의나라 정객들이 부르죠아의회제와 부르죠아다당제를 놓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표본인것처럼 놀아대지만 명백히 배후에서 실지 정치를 좌우지하는것은 돈많은 대독점자본가들이다. 이러한 형식적인 의회제나 다당제마저 반동적인 통치를 유지하는데 방해가 될 때에는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로골적인 파쑈통치가 실시된다. 이것은 력사적사실이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만민평등》도 허울좋은 간판에 불과하다. 미국에서는 날로 우심해지는 온갖 차별행위로 사람들의 평등권이 여지없이 짓밟히고있다. 그 집중적표현이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있는 인종차별이다.

미국에서는 흑인들과 아시아계, 라틴아메리카계주민들의 빈궁률이 백인들에 비해 훨씬 높다. 흑인들과 소수민족주민들은 범죄의 주요피해자로, 사법당국의 편견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얼마전에도 미국의 미주리주 퍼구슨시에서 한 흑인청년이 백인경찰의 총에 맞아 사살되였으며 이에 항거하여 시위에 떨쳐나선 주민들은 경찰들의 탄압대상으로 되였다.

미국에서 녀성들의 경우는 더욱 한심하다. 그들은 빈궁에 시달리면서 항시적인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바로 이것이 자본주의사회의 진짜 모습이다. 자본주의는 결코 우월한 사회도 아니며 영원한 사회도 아니다. 한마디로 악취풍기는 오물투성이로 가득찬 더러운 사회이다.

자본주의는 자기 고유의 반인민성과 갈수록 성행하는 부패성으로 하여 날로 썩고 병들어가며 멸망에로 줄달음치고있다.

리 학 남

미국의 반꾸바봉쇄책동 규탄

앙골라 부대통령이 9월 29일 유엔총회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미국의 반꾸바봉쇄책동을 규탄하였다.

그는 미국의 봉쇄책동은 꾸바인민의 권리와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들에 대한 란폭한 침해행위라고 단죄하였다.

앙골라정부는 꾸바를 반대하는 경제봉쇄를 당장 끝장낼것을 요구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이스라엘의 탄압행위 비난

요르단 종교 및 이슬람교문제상이 9월 28일 팔레스티나의 동부꾸드스에 있는 알 아크사사원에서 감행한 이스라엘의 불법무도한 행위를 비난하였다.

그는 이스라엘군이 사원주변의 도로들에 검열초소들을 설치하고 많은 병력을 동원하여 이슬람교도들의 사원출입을 가로막은데 대해 단죄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이 그러한 행위를 당장 중지하도록 압력을 가할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하였다.

야생동물들 급격히 감소

세계적으로 야생동물들의 마리수와 종수가 급격히 감소되여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9월 30일 세계자연보호기금은 1970년이래 파충류와 새류, 짐승류, 량서류 등을 비롯한 동물마리수가 52%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민물고기종수는 76% 감소되였다.

이것은 생태환경파괴와 기후변화 등에 기인된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ㄱ-411561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